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한국 현대 성장소설에 나타난 모티프 분석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語教育專攻

白 暲 雅

2016年 2月

한국 현대 성장소설에 나타난 모티프 분석

指導教授 安 成 洙

白 暻 雅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5年 12月

白暻雅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印)

委 員 _____ (印)

委 員 _____ (印)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2015年 12月

Analysis of Motifs
in the Korean Modern Formation Novels

Back, Kyoung-ah

(Supervised by professor Ahn, Seong-soo)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2015. 12.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2015. 12.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국문초록>

한국 현대 성장소설에 나타난 모티프 분석

백 경 아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지도교수 안성수

이 연구는 해방 후 한국 현대 성장소설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다섯 가지 모티프의 전개 양상과 특성 분석을 통하여 한국 현대 성장소설의 서사미학적 특성을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구조주의와 형식주의 방법을 원용하였으며 귀납적인 텍스트 분석의 방법을 활용하여 각 모티프의 특성을 발견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13편의 텍스트가 보여준 성장모티프의 양상은 <성과 사랑의 체험>, <아버지 찾기>, <죽음의 인식>, <여행을 통한 발견>, <순수성의 상실> 이다.

모티프 분석을 통해서 한국 현대 성장소설은 인식적 차원과 실천적 차원의 두 가지 성숙의 양상을 형상화하는 특성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성장소설에서는 혼돈의 상황에서 정체성을 찾지 못하는 주인공이 시련 과정을 거쳐 성장에 이르는 내용이 주를 이루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한국 현대 성장소설에서 드러나는 보편적인 특성은 첫째, 해방 후 한국 성장소설에서는 ‘자아정체성’의 문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정체성 찾기 모티프가 대두되는 것은 당대의 시대 역사적 상황과 상관성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성장의 주체는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삶을 이해하면서 성장을 이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한국 성장소설은 소설 속 주인공들이 자아 성장과 새로운 세계관 확립을 위해 조력자의 역할이 중시되는 유형이라는 것이다.

셋째, 한국 현대 성장소설에서 또 다른 특성은 가족주의의 이념적 변화를 작품화 한다는 것이다. 21세기에 이르러서는 유교적 세계관에 따른 가족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족윤리를 제시하며, 개인주의적 삶을 모색하는 양상을 확인하였다. 이것은 가족 중심주의가 개인주의로 옮겨가고 있는 사회 현상에 따라 한국의 성장소설도 그러한 변화를 적극 수용하면서 성장의 의미를 탐구해가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목 차>

I. 서론	1
1. 연구 목적	1
2. 선행 연구 검토	3
3. 연구 방법과 범위	6
II. 성장모티프의 전개 양상과 특성 분석	8
1. 성과 사랑의 체험	8
1) 첫사랑의 경험과 아픔	9
2) 이별의 격리 체험과 성장	14
3) 사랑의 본질과 의미 발견	18
2. 아버지 찾기	24
1) 아버지와의 갈등과 화해	24
2) 아버지 거부와 아버지 찾기	29
3) 상상 속 만남과 기다림	32
3. 죽음의 인식	38
1) 아버지의 죽음과 정체성 확립	38
2) 죽음과 재생의 세계 인식	43
4. 여행을 통한 발견	47
1) 자아 탐색을 위한 방황과 귀환	48
2) 삶의 진정한 의미 찾기	53
5. 순수성의 상실	60
1) 악의 체험을 통한 자아 발견	60
2) 순수성의 상실과 부조리 체험	65
3) 사회악의 경험과 성장통	70
III. 한국 현대 성장소설의 양상과 의의	77
IV. 결론	81
<참고문헌>	85
<Abstract>	87

I. 서론

1. 연구 목적

이 연구는 해방 후 한국 현대 성장소설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다섯 가지의 성장모티프의 전개 양상과 특성 분석을 통해서, 현대소설의 한 유형으로 자리 잡은 성장소설의 서사미학적 의의를 살피는데 목적을 둔다.

일반적으로, 성장소설은 유년기에서 소년기를 거쳐 성인의 세계로 입문하는 한 인물이 겪는 육체적 성장과 정신적 갈등, 그리고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에 대한 각성 과정 등을 다루고 있는 소설이다. 그러므로 성장소설에서는 주인공의 성장 과정을 보여주는 서사구조와 의식의 변화 양식 등을 형상화하는데 강음부를 든다.

성장소설은 미성숙한 주체가 이끄는 성장과정의 체험을 순진한 서술자의 눈과 목소리를 통하여 주인공의 내면과 세계와의 갈등을 사실적으로 제시한다. 주제적인 측면에서는 미숙한 주인공의 성장과정을 제시하고,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통과 의례 혹은 탐색담의 서사구조를 보여준다. 그러므로 성장소설은 내재적 요소와 외재적 요소가 상호텍스트적으로 결합되어 갈래 구분이 쉽지 않은 유형적 특성을 보인다.¹⁾

소설 속 주인공들이 어린 시절의 성장 과정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모두 성장소설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때, 성장소설을 판별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다. 즉, 어린 주인공들이 삶 속에서 위기와 고난을 만났을 때, 그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주인공이 자아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주변 인물과 환경은 어떠한 작용을 하는가?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어린 주인공이 어떠한 의식과 인식의 변화를 경험하는가? 등이다. 대부분의 성장소설은 이러한 부분에 초점을 두고 주인공의 성숙 과정의 형상화에 의미를 둔다.

1) 최현주, 『한국 현대 성장소설의 세계』, 박이정, 2004, p. 41.

한국 현대소설사의 관점에서, 청소년 주인공의 성장을 다룬 일련의 소설작품들이 발표되기 시작한 것은 김유정의 「동백꽃」(1936) 이후로 보인다. 그러나 성장소설에 대한 개념과 용어, 장르적 특성들이 학문적으로 정리되지 않아서 소설을 이해하는데 혼란을 초래하고, 뚜렷한 서사 전개에 따른 성장소설의 특징을 정립시키지도 못했다²⁾는 반성이 일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성장소설이라는 하나의 장르에 20여 가지의 용어³⁾가 혼용되고 있는 예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성장소설의 장르적 정체성에 관한 연구의 문제점은 외국의 처지에서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이러한 혼란은 성장소설에 대한 용어들이 나라마다 문학적 특성과 문화적 전통에 따라 각기 다른 명칭으로 불리고 있으며, 그 내용과 형식도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발견된다.⁴⁾

이러한 사실은 성장소설의 주인공들의 교양 수준 또한 시대와 나라 및 작가가 소속되어 있는 사회 문화적 특성과 관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주인공의 성격적 특성은 창작 당시의 시대적 전형과 문화적 환경을 반영하여 창조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성장소설에 등장하는 작중인물의 교양이나 성격도 시대와 역사, 집단과 문화가 요구하는 보편적인 삶의 욕망과 무관하지 않게 된다.

이와 같은 논리를 바탕으로, 해방 후에 발표된 한국의 성장소설들도 당대의 역사적 상황과 호응하면서 장르적 본질을 발전시켜 왔으리라는 추론이 가능해진다. 시대를 앞선 그 어떤 사상도 그 시대의 구체적 현실에 기초한 것일 때만 문학적 공감과 생명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⁵⁾ 비록, 성장소설의 개념은 서구에서 빌려온 것이지만, 한국 성장소설만의 고유한 특성이 내재한다는 점은 작품의 분석적 연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해방 후, 195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발표된 한국 현대 성장소설의 모티프와 그 특성 분석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될 것이다. 첫째, 주인공들은 어떻게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아의 성장과 성숙에 이르게 되는가? 둘째, 한국 현대 성장소설은 어떤 양상적 특성을 내보이며 발전해 왔는가? 등이다.

2) 남미영, 「한국 현대 성장소설 연구」, 숙명여대 박사학위논문, 1991, p. 2.

3) 교양소설, 교육소설, 입사소설, 견습소설, 통과외레소설, 이니시에이션 스토리, 성년식 소설, 발전소설, 형성소설, 성장소설 등의 용어가 있다.

4) 최현주, 앞의 책, p. 28.

5) 이보영 외, 『성장소설이란 무엇인가』, 청예원, 1999, pp. 13~14.

2. 선행 연구 검토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의 육체적·정신적 성장과 성숙과정을 보여주는 성장소설은 교양소설(Bildungsroman)이나 교육소설(Educational novel), 혹은 형성소설(Novel of Formation), 입사소설(Initiation novel) 등으로 불린다.

교양소설은 인간의 성장에 대한 믿음에 기초를 두고 자아라는 내부세계와 외부세계와의 갈등 속에서, 성숙을 지향하는 주인공의 내면적 발전과정을 묘사한 소설이다. 교양소설과 유사한 개념인 교육소설은 젊은 남녀들을 바람직한 시민으로, 그리고 도덕적·지적으로 성숙한 성인으로 교육시킬 목적으로 18세기 말 유럽에서 발달된 장편소설의 한 양식이다.⁶⁾

이처럼 교양소설과 교육소설이 주로 개인의 내면적 성숙과정이나 자기 수양적 측면을 보여준다면, 형성소설은 개인의 내면화보다는 사회로부터 받는 영향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성장 주체의 능동적 의지보다는 사회 환경의 영향에 의해 성장하는 주체의 수동적 양상을 형상화한다.

입사소설은 이니시에이션 스토리, 또는 통과의례 소설이라고도 한다. 이것은 주인공들이 성숙한 세계에 도달하기 위해 신화적인 낙원세계와 현실세계, 또는 순진과 성숙, 어둠과 밝음의 갈등 속에서 자아의 각성과 성장을 구조화한다는 점에서 성장소설과 유사한 개념을 갖고 있다.⁷⁾ 예술가 소설 또한 하나의 소설가 혹은 예술가가 현실과 예술적 이상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예술가로서의 자아인식에 도달하는 성장과정을 그린 작품들을 지칭한다.⁸⁾

이러한 성장소설의 주된 내용은 지적, 도덕적, 정신적으로 미숙한 상태에 있는 어린아이, 혹은 소년 등이 겪는 갈등이 중심을 이루며, 그가 자아의 미숙함을 딛고 자신의 고유한 존재가치와 세계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그러므로 성장소설은 주인공이 미숙에서 성숙으로, 결핍에서 충족으로, 불완전에서 완전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담아내는 특질을 보여준다.⁹⁾

6) 한용환, 『소설학 사전』, 문예출판사, 2012, p. 55.

7) 최현주, 앞의 책, pp. 33~34.

8) 한용환, 앞의 책, p. 253.

9) 최현주, 앞의 책, p. 36.

한국 현대 성장소설에 대한 논의는 개념적 접근으로부터 시작하여 주로 두세 편의 작품을 대상으로 성장소설로서의 가능성 및 한계를 지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성장소설에 대한 연구는 김윤식이 1970년 『사상계』에 ‘교양소설’이라는 용어를 소개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성장소설의 작품 내재적 가치에 대한 연구는 이재선에 의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는 황순원의 작품을 분석하면서 어린이나 젊은이를 주인공으로 설정하여 세계의 현실 속에서 변화와 성숙의 과정을 보여주는 소설 형태를 이니시에이션 소설로 정의하였다.¹⁰⁾

최현주는 한국 현대 성장소설의 전개와 정립 양상을 모티프별로 파악하고 서사구조의 양상을 심층구조와 담론특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¹¹⁾ 그는 1930년대에서 1990년대까지의 한국 현대 성장소설 20편을 고찰하고, 한국 현대 성장소설은 자아정체성의 문제를 심도 있게 탐색했다는 점에 가치를 두면서도, 근대적 자아상이 서구 편향의 성격을 띤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였다.

남미영은 1930년대~1990년대까지의 80여 편의 성장소설을 분석하여 <성의 눈뜸>, <죽음의 인식>, <환멸과의 만남>, <악의 체험>, <아버지 찾기>, <길의 발견> 등 6가지 모티프를 중심으로 성장소설의 서사문법을 탐색하였다.¹²⁾

한편, 정상희는 1930~1990년대 성장소설을 <2차 성장에 의한 성(性)>, <아버지 찾기>, <아버지 부재>, <사회적 현상>에 의한 성장모티프 유형으로 분류하고, 주인공들이 미숙에서 성숙으로, 자아발견과 주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과정을 서사구조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그러나 9편의 성장소설만으로 한국 현대 성장소설의 서사구조를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연구방법을 제시하지 않은 점도 문제점으로 보인다.¹³⁾

장서영은 2000년대 이후 출간된 청소년기 성장소설 40편을 검토한 후 <가족 정체성의 혼란>, <성에 눈뜸>, <열등감>, <폭력 체험>, <길 떠남> 성장 모티프를 추출하여 현대 성장소설의 전반적인 특징을 정리하였다.¹⁴⁾

허선화는 성장소설에서 결정적인 각성의 계기를 중심으로 주인공의 자아와 세

10) 위의 책, pp. 20~21.

11) 최현주, 「한국 현대 성장소설의 서사 시학 연구」, 전남대 박사학위논문, 1999.

12) 남미영, 앞의 논문.

13) 정상희, 「한국 현대 성장소설의 서사구조 연구」, 단국대 석사학위논문, 2001.

14) 장서영, 「한국 현대 성장소설의 모티브 분석」, 가톨릭대 석사학위논문, 2009.

계의 관계에 따라 <가족의 붕괴와 동일성의 상실>, <비극의 인식>, <악의 체험>, <성 정체성의 혼란>으로 분류하고 한국 성장소설의 양상을 살펴보았으나, 한국 성장소설의 특징이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문제점을 보인다.¹⁵⁾

이영미는 2000년대 성장소설이 1990년대와 다른 성장소설의 양상을 보이는데 주목한다.¹⁶⁾ 이 연구는 김애란의 초기 성장소설을 텍스트로 하여 2000년대의 존재 조건과 관련지어 작품내용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지만, 김애란 소설의 총체적 연구에 도달하지 못한 한계를 보인다. 그리고 동시대 다른 작가들의 성장소설을 포함시키지 않고 김애란의 작품만으로 2000년대 성장소설의 서사구조적 특성과 변화를 설명하고자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정현아는 성장소설 중에서 성과 사랑을 다룬 통과외레로서의 성과 성적 소수자의 성, 위험에 노출된 성으로 나누어 성과 사랑의 양상과 의미를 고찰하였다.¹⁷⁾ 그러나 이 연구는 청소년 소설에서 아직 체계적으로 논의되지 못한 성과 사랑을 다룬 점에 의의를 부여할 수 있지만, 단편소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다양한 양상을 살피지 못한 한계점을 갖는다.

강민영은 김원일의 「어둠의 혼」과 윤홍길의 「장마」에 나타난 유년기 전쟁 체험 세대의 성장소설을 고찰하고, 한국 소설사에서 전쟁 체험이 갖는 의미를 한국 고유의 성장소설로서 가치를 넓힐 수 있다고 주장한다.¹⁸⁾

박정은은 악의 세계와 죽음의 세계 인식을 통해서 윤홍길 성장소설의 주인공들이 어떤 과정으로 성장해 가는지를 고찰하였다.¹⁹⁾ 그는 주인공들이 악의 체험과 죽음의 체험을 통해 어른들의 세계를 인식하며 성장해간다는 점에서 성장소설의 긍정적 효과를 주장하였다.

심일주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젊은 날의 초상」을 대상으로 작품 속에 내재된 성장 요소와 그 의미를 찾아보았으나, 두 작품만으로 이문열 성장소설의 전개양상을 정리하고 구조적 특성을 구명하는 것이 한계로 작용한다.²⁰⁾

15) 허선화, 「한국 현대 성장소설의 유형 연구」, 신라대 석사학위논문, 2007.

16) 이영미, 「김애란의 성장소설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학위논문, 2012.

17) 정현아, 「청소년문학에 나타난 성과 사랑에 대한 고찰」, 인하대 석사학위논문, 2010.

18) 강민영, 「유년기 전쟁 체험 세대의 성장소설 연구 - 김원일 「어둠의 혼」, 윤홍길 「장마」를 중심으로」, 공주대 석사학위논문, 2013.

19) 박정은, 「윤홍길 성장소설 연구 - 악의 체험과 죽음의 체험을 중심으로」, 홍익대 석사학위논문, 2006.

20) 심일주, 「이문열의 성장소설 연구 -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과 「젊은 날의 초상」을 중심으로」, 홍익대 석사학위논문, 2007.

3. 연구 방법과 범위

이 연구에서는 형식주의와 구조주의 방법을 원용하여 성장소설의 텍스트에 도입된 핵심 모티프들의 전개 양상과 특성을 살펴보고, 선택된 모티프들이 소설 속에서 어떤 서사구조를 구축하는지를 분석해보려고 한다. 이러한 목표는 한국 현대 성장소설의 특성과 발전 양상을 살피는 데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안겨줄 것으로 믿는다.

서사구조의 차원에서 성장소설은 결핍에서 충족으로, 불완전에서 완전으로, 미숙에서 성숙으로 발전하는 변증법적 이항대립의 구조로 서사화 된다. 이와 같은 특징은 미성숙한 주인공이 충격적인 시련과 고난을 겪으면서 성숙에 이르기 위해 정신적·육체적 시련을 겪는 통과의례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즉, 분리(separation)→전이(translation)→결합(incorporation)의 세 단계가 그것이다.²¹⁾

성장소설에 뚜렷하게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은 세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실천이다. 그것은 자아의 내면 탐색과 세계의 외적인 변화에 대한 적응 양상으로 나타난다. 이를 통하여 성장소설은 독자로 하여금 새로운 세계관으로의 편입을 유도하는데, 그것은 이전의 미숙하고 비합리적인 세계에 대한 인식에서 성숙하고 합리적인 세계 인식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²²⁾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선택된 텍스트들을 3단계로 분석하고 해석하는 논리적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첫째 단계에서는 작품 내용을 최소 사건으로 분절하여 요약한 뒤, 그것들을 보다 상위 개념의 의미군으로 묶어 통합하는 시퀀스(Sequence)²³⁾의 명명과정이다. 이를 통해서 서사적 이야기 속의 모티프는 그 행위 기능적 특성을 내보임으로써 모티프들이 주제의 형상화 과정에 참여하는 방법과 논리를 설명하는 의미 있는 단서를 제공할 것이다. 둘째 단계에서는 앞서 요약 제시된 모티프의 핵심적인 행위기능을 탐색하여 주인공이 소설 속에서 경험하는 성장의

21) 최현주, 앞의 책, p. 42.

22) 위의 책, p. 42.

23) 몇 개의 최소사건을 보다 큰 의미집단으로 묶어 명명 한 것, 시퀀스로 요약하는 것은, 단락의 상위 개념이자 동일한 주제소를 함유한 연속된 행동들의 집합으로 이야기의 흐름을 보다 간결하게 보여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안성수, 「소설의 플롯시학 연구」, 백록어문학회, 2015, p. 40.

과정과 결과를 인식적 차원과 실천적 차원의 두 모형에 적용하여 유형화한다. 셋째 단계에서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성장소설의 구조 속에서 기능하는 유사 모티프들의 보편적 특성을 정리하여 제시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귀납적인 텍스트 분석의 방법을 활용하고 분석과 해석의 과정을 중시한다. 총 13편의 소설을 개별적으로 분석하여 그 특성을 찾아내고, 각 텍스트들의 모티프 기능의 유사성을 추출하여 보편적 특성으로 묶어 유형화하는 서술 방법을 활용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모티프의 유사성과 차이성을 분별기준으로 삼아 해방 후 한국 성장소설을 분류해본 결과 <성과 사랑의 체험>, <아버지 찾기>, <죽음의 인식>, <여행을 통한 발견>, <순수성의 상실> 등 다섯 가지 모티프 양상으로 묶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5가지 모티프가 성장담에 반드시 발견되는 전형적인 모티프는 아니라는 것을 밝혀둔다.

연구 범위는 1950년대~2000년대에 발표된 13편의 성장소설로 한정한다. 이러한 13편의 텍스트 중에는 단편 8편, 중편 2편, 장편 3편이 포함된다. 1950년대~1990년대 작품 중에는 한국 현대 성장소설 중 성장 서사를 모범적으로 보여준 9편을 텍스트로 선정하였다. 2000년대 이후 출간된 성장소설 중에서는 미성숙한 주인공이 성숙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4편의 작품에 한정하였다. 이 작품들은 청소년 주인공이 주체로 등장하여 정신적 위기를 극복해가는 과정과 그에 따른 자각성의 모습을 성공적으로 보여준 작품들이기 때문이다.

이 연구를 위해 분석 텍스트로 선정된 작품 목록은 다음과 같다. 즉, 1950년대에는 황순원의 「소나기」(1953), 1960년대에는 강신재의 「짧은 느티나무」(1960)와 「김승옥의 「乾」(1965), 1970년대에는 윤홍길의 「장마」(1973), 김원일의 「어둠의 혼」(1973), 박기동의 「아버지의 바다에 은빛 고기떼」(1979), 1980년대에는 이문열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1987), 「그해 겨울」(1980), 90년대에는 김소진의 「자전거 도둑」(1996), 2000년대에는 김애란의 「사랑의 인사」(2005), 이재민의 『사슴벌레 소년의 사랑』(2003), 김혜정의 『하이킹 걸즈』(2008), 이옥수의 『푸른 사다리』(2004)이다.

II. 성장모티프의 전개 양상과 특성 분석

비교문학적 관점에서 모티프란 여러 작품에서, 또는 서로 다른 작품 속에서 동일한 형태로 발견되는 사건이나 소재를 가리키는 개념이다. 모티프는 애증, 복수, 한탄, 민족애등과 같이 추상적인 성격을 가질 수 있고, 소재 그 자체처럼 구체적일 수 있다. 이때의 구체성은 문학의 관습에서 오래도록 되풀이되어 온 소재의 성격을 뜻한다. 부친살해, 근친상간, 변신 모티프는 추상적인 성격의 경우이고 신데렐라의 신발 모티프는 구체적인 성격의 경우이다. 구체성과 추상성을 불문하고 모티프의 본질은 이루고 있는 것은 물론 ‘반복’이다. 그러므로 하나의 모티프는 여러 소재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반대로 하나의 소재 속에 여러 개의 모티프가 나타날 수도 있다.²⁴⁾

본고에서는 한국 현대 성장소설에서 성장을 이루는 각성의 계기로 작용하는 요인 모티프를 다섯 가지로 나누어보았다. 먼저 성장소설에서 ‘성과 사랑의 체험’ 모티프에서는 주인공들이 이성으로 인하여 내면적 성숙을 이루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두 번째는 ‘아버지 찾기’ 모티프이며 아버지 부재, 아버지와의 갈등과 화해 등을 통해 주인공이 성숙을 이루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또 타인의 죽음으로 성숙을 이루는 ‘죽음의 인식’ 모티프, 사회악을 경험하며 어른의 세계로 나아가는 ‘순수성의 상실’ 모티프가 있다. 그리고 ‘여행을 통한 발견’ 모티프에서는 여행을 하면서 정체성을 탐색하고 성숙을 이루는 과정을 보여준다.

1. 성과 사랑의 체험

성장소설의 주인공들은 유년기에서 성인기로 옮겨가는 청소년 시기에 서 있다. 이 시기는 인간의 신체적 변화 가운데 가장 큰 변화를 겪는 시기이다. 이와 같이

24) 한용환, 앞의 책, pp. 147~148.

신체적 성장 현상은 성적 성숙을 준비하고, 성장소설은 주인공이 성에 눈을 뜨는 것을 주요 모티프로 삼는다.

한국의 현대소설 중에는 청소년 주인공이 성(性) 문제를 다룬 소설이 특히 많다. 그런데 이 종류의 소설들은 두 부류로 구분된다. 하나는 주인공의 성적 관심의 확대와 성적 타락을 그린 소설이며 다른 하나는 주인공의 육체적 성숙이 내면적 성숙으로 이행되어 가는 과정을 그린 소설들이다.

이 장에서는 성적 타락을 다룬 소설보다는 내면적 성숙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그린 작품으로 선정하였다.

1) 첫사랑의 경험과 아픔

황순원의 「소나기」는 순진무구한 소년이 소녀와의 만남을 통해 이성에 눈을 뜨며 성숙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소설 속에 등장하는 소년과 소녀의 이야기는 청소년기에 한 번쯤 겪어 봤을 듯한 열병을 앓는 첫사랑의 이야기이다.

이 소설은 어린 주인공이 유년기를 벗어나 성숙한 인간으로의 변화되는 과정에서 겪는 시련에 초점을 두고 있다. 즉, 소년은 소녀와 소나기와 같은 짧은 만남을 통해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동시에 아픔을 겪으며 성숙에 이르게 된다.

이 소설의 중요한 서사적 사건은 21개 단락으로 요약하여, 만남 시퀀스→기다림 시퀀스→사랑 시퀀스→이별 시퀀스로 묶어 문학적 의미와 주제의 생성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만남 시퀀스>

- ① 소녀는 징검다리 한 가운데서 물장난을 한다.
- ② 소년은 개울둑에 앉아 소녀가 비키기를 기다린다.
- ③ 다음 날 소녀는 징검다리에서 물을 움켜지더니 하얀 조약돌을 집어낸다.
- ④ 소녀는 소년에게 “이 바보.” 하며 조약돌을 던진다.
- ⑤ 소년은 조약돌을 집어 주머니에 넣는다.

<기다림 시퀀스>

- ⑥ 소년은 개울가에 소녀가 보이지 않으면 허전함을 느끼게 되고 조약돌을 만

지는 버릇이 생겼다.

- ⑦ 소년은 물속에 비치는 검게 탄 자신의 얼굴이 창피하게 느껴진다.
- ⑧ 소녀가 소년에게 건너오자 소년은 놀라며 달리기 시작한다.

<사랑 시퀀스>

- ⑨ 소년과 소녀는 대화를 하게 되고 둘은 산으로 소풍을 간다.
- ⑩ 소년은 무밭에 들어가 무 두 개를 뽑아와 소녀와 씹어 먹는다.
- ⑪ 소년은 많은 꽃을 꺾었고 소녀는 보랏빛 도라지꽃이 좋다고 한다.
- ⑫ 비탈진 곳에서 소녀가 넘어져 무릎에 피를 흘리자 소년이 피를 빨아준다.
- ⑬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했고 원두막에서 비를 피한다.
- ⑭ 소년은 추워하는 소녀에게 무명 저고리를 벗어 어깨를 싸준다.
- ⑮ 밝은 엄청난게 물이 불어있어 소년이 소녀를 등에 업고 산을 내려온다.

<이별 시퀀스>

- ⑯ 소년은 며칠 후 창백한 얼굴을 하고 개울가에 앉아 있는 소녀를 만난다.
- ⑰ 소녀는 소년등에 업힌 날 검붉게 물이 든 스웨터를 소년에게 보여준다.
- ⑱ 소녀는 소년에게 대추 한줌을 주며 곧 이사 갈 것이라고 말한다.
- ⑲ 소년은 집에 가는 길에 호두를 따며 소녀에게 주어야겠다고 생각한다.
- ⑳ 소녀가 이사 가기 전 날 밤 아버지로부터 소녀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소년은 충격을 받는다.
- ㉑ 소년은 소녀가 죽기 전 자신이 죽으면 입던 옷을 그대로 입혀 묻어달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순수한 소년과 소녀의 사랑은 농촌의 전원적 배경에서 이루어진다. 푸른 가을 하늘과 허수아비가 서 있고 논, 개울물이 흐르며 원두막이 보이는 자연의 배경은 「소나기」의 순수한 이야기의 성격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소녀는 소년이 개울둑에 앉아있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날쌔게 물만 움켜낸다. 그런데 번번히 허탕이다. 그래도 재미있는 양, 자꾸 물만 움킨다. 어제처럼 개울

을 건너는 사람이 있어야 길을 비킬 모양이다. 그러다가 소녀가 물속에서 무엇을 하나 집어낸다. 하얀 조약돌 이었다. 그리고는 훌 일어나 팔짝팔짝 징검다리를 뛰어 건너간다. 다 건너가더니 뺨 이리로 돌아서며, “이 바보.” 조약돌이 날아왔다.²⁵⁾

소녀는 소년과 친해지기 위해 의도적으로 징검다리 한가운데 앉아 물장난을 한다. 하지만 소년은 이러한 소녀의 의도를 눈치 채지 못하고 징검다리 건너는 길을 불편하게 만드는 아이로만 생각을 한다. 그리고 소년은 비켜달라는 말도 못하고 가만히 앉아 있다. 소년의 행동에 답답한 소녀는 “이 바보.” 하며 조약돌을 던진다. 이러한 행동에서 소년의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성격과 소녀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성격을 알 수 있다. 조약돌을 던지는 소녀의 행동은 소년의 성에 대한 무지를 깨우치는 동기로 작용한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었다. 소녀의 그림자가 비치 않는 날이 계속될수록 소년의 가슴 한구석에는 어딘가 허전함이 자리잡는 것이었다. 주머니 속 조약돌을 주무르는 버릇이 생겼다. 그러하 어떤날, 소년은 전에 소녀가 앉아 물장난을 하던 징검다리 한가운데에 앉아보았다. 물속에 손을 잠갔다. 세수를 하였다. 물속을 들여다보았다. 검게 탄 얼굴이 그대로 비치었다. 싫었다.²⁶⁾

결국 소년은 소녀를 의식하며 기다리게 되고 조약돌을 주무르는 버릇이 생긴다. 조약돌을 만지는 것은 소녀를 생각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여기서 조약돌은 소년과 소녀의 마음을 연결시켜 주는 매개체 구실을 하고, 조약돌을 주무르는 행동은 이성에 대한 최초의 심리적인 반응을 의미한다고 하겠다.²⁷⁾ 그리고 소년은 물에 비친 자신의 검게 탄 얼굴을 보면서 창피하다고 생각 하는데 소녀에게 보이는 자신의 외모를 의식하고 있는 것이다. 즉, 이러한 행동들은 순진무구한 소년이 이성애 눈뜨는 소년이 되어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애, 이게 무슨 조개지?” 자기도 모르게 돌아섰다. 소녀의 맑고 검은 눈과 마주쳤

25) 황순원, 『소나기』, 일신서적출판사, 1997, pp. 5~6.

26) 위의 책, p. 6.

27) 박학희, 「황순원의 성장소설에 나타난 통과제의적 양상 연구 - 초기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p. 53.

다. 얼른 소년의 손바닥으로 눈을 떨구었다. “비단조개.” “이름도 참 곱다.” <중략> “너 저 너머에 가본 일 있니?” 별 끝을 가리켰다. “없다.” “우리 가보지 않을까? 시골 오니까 혼자서 심심해 못견디겠다.”²⁸⁾

소년이 소녀를 피하지 않고 징검다리를 건너며 둘은 대화를 나누게 된다. 그리고 소녀는 산에 놀러갈 것을 제안하였고 소년과 소녀는 둘만의 시간을 보낸다.

산은 둘만이 떠나는 공간으로 소년과 소녀가 사랑으로 입문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개울가가 소년과 소녀를 만나게 해 준 공간이라면 산은 두 남녀의 사랑이 시작되는 공간인 것이다.

소년은 참외그루에 심은 무밭으로 들어가, 무 두 밭을 뽑아왔다. 아직 밭이 텅 들어 있었다. 잎을 비틀어 팽개친 후 소녀에게 한 밭 건넨다. 그리고는 이렇게 먹어야 한다는 듯이 먼저 대강 이를 한 입 베물어낸 다음 손톱으로 한 돌이 껍질을 벗겨 우적 깨문다. <중략> “이게 들국화, 이게 싸리꽃, 이게 도라지꽃…….” “도라지 꽃이 이렇게 예쁜 줄은 몰랐네. 난 보랏빛이 좋아!…….” 다시 소년은 꽃 한 움큼을 꺾어왔다. 싱싱한 꽃가지만 골라 소녀에게 건넨다. <중략> 소년이 놀라 달렸다. 소녀가 손을 내밀었다. 소녀의 오른쪽 무릎에 핏방울이 내뿜었다. 소년은 저도 모르게 상처기에 입술을 가져다대고 빨기 시작했다.²⁹⁾

산에서 둘만의 시간을 보내며 더욱 가까운 사이가 되고 소년은 소녀를 위해 무를 뽑아다주고 꽃을 따다 주면서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한다. 그리고 소녀가 미끄러져 무릎을 다쳐 피가 나자 자신의 입술을 가져다대고 빠는 데 여자를 보호하는 남성적인 면모를 드러낸다. 이처럼 소년은 소녀를 통해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각성하게 된다. 성적으로 무지했던 소년은 무의식중에 남성적 자질의 행동을 하게 된다.

갑자기 사면이 소란스러워진 것 같다. 바람이 우수수 소리를 내며 지나간다. 삼시에 산에 주위가 보랏빛으로 변했다. 산을 내려오는데 떡갈나무잎에서 빗방울 듣는 소리

28) 황순원, 앞의 책, p. 7~8.

29) 위의 책, pp. 9~10.

가 난다. 굵은 빗방울이었다. 목덜미가 선뜻선뜻했다. 그러자 대변에 눈앞을 가로막는 빗줄기. <중략> 소녀는 입술이 파랗게 질려있었다. 어깨를 자꾸 떨었다. 무명 겹저고리를 벗어 소녀의 어깨를 싸주었다. <중략> 소년이 등을 돌려댔다. 소녀가 순순히 업혔다. 건어올린 소년의 잠방이까지 물이 올라왔다. 소녀는, 어머니 소리를 지르며 소년의 목을 그러안았다.³⁰⁾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하였다. 소년은 추워하는 소녀에게 저고리를 벗어 주고 물이 불어 도랑을 건너기 어려워지자 소녀를 업어 걷기도 한다. 이처럼 소나기는 둘의 사이를 더욱 밀착되게 하고 사랑을 더욱 깊게 하는 역할을 한다. 한편 소나기는 소년에게 시련이 올 것이라는 복선의 역할을 하고 있다. 더불어 보랏빛으로 변한 주위, 소녀의 파란 입술, 검붉은 진흙물이 든 소녀의 분홍 스웨터 등은 불길한 일이 생길 것이라는 징조를 나타내고 있다.

소녀와 헤어져 돌아오는 길에 소년은 혼잣속으로 소녀가 이사를 간다는 말을 수없이 되뇌어보았다. <중략> 이날 밤, 소년은 몰래 덕쇠할아버지네 호두밭으로 갔다. 낮에 봐두었던 나무로 올라갔다. 그리고 봐두었던 가지를 향해 작대기를 내리쳤다. 호두송이 떨어지는 소리가 별나게 크게 들렸다. 가슴이 선뜻했다. 그러나 다음 순간, 굵은 호두야 많이 떨어져라, 많이 떨어져라, 저도 모를 힘에 이끌려 마구 작대기를 내리치는 것이다. <중략> 그저 근동에서 제일가는 이 덕쇠할아버지네 호두를 어서 소녀에게 맛보여야 한다는 생각만이 앞섰다.³¹⁾

소녀의 가족은 고향집을 남의 손에 넘기게 되어 이사를 가게 되는데 소년은 소녀가 이사를 간다는 사실에 안타깝고 서러워한다. 이는 헤어짐이란 이별의 아픔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소녀에게 호두 맛을 보여주기 위해 몰래 덕쇠할아버지집에 있는 호두를 따기 시작한다. 나무에 올라가 작대기로 힘껏 가지를 내리치며 호두를 따는 행동에서는 소극적이던 소년이 사랑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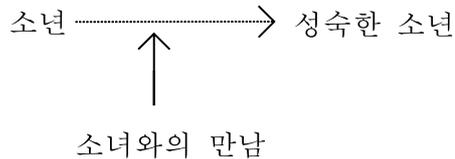
글쎄 말이지. 이번 앤 꽤 여러 날 앓는 걸 약두 변변히 못 써봤다드군. 지금같이서

30) 위의 책, pp. 11~12.

31) 위의 책, p. 14.

는 윤초시네두 대가 끊긴 셈이지…… 그런데 참 이번 기집애는 어린 것이 여간 잔 망스럽지가 않아. 글썄 죽기전에 이런 말을 했는지 않아? 자기가 죽거든 자기 입든 옷을 꼭 그대루 입혀서 물어달라구…….32)

소녀와의 이별을 준비하며 아픔을 체험하던 소년은 더한 충격을 받게 된다. 건강이 좋지 않았던 소녀는 소나기를 맞고 난 후 건강이 더욱 악화되어 죽음을 맞게 된 것이다. 소녀의 죽음은 잠자리에 있던 소년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대화를 통해 알게 된다. 소녀는 자기가 죽거든 자기 입은 옷을 그대로 물어달라는 말에서 소년과의 추억과 사랑을 간직하고자 하는 마음을 읽을 수 있다. 소년은 헤어짐보다 더한 죽음이라는 현실과 맞서면서 죽음을 초월하는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33) 이와 같이 소년은 소녀와의 만남으로 이성에 눈을 떠가며 자아정체성을 형성해가는 성장과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인식적 차원의 성장소설로서의 특성을 획득한다.



그러므로 사춘기인 소년은 운명적인 소녀와의 만남으로 사랑을 경험하면서 자아를 들여다보게 된다. 그리고 이별과 죽음이라는 시련과 고통을 겪으며 자아를 둘러싼 세계를 인식하게 되며 성장을 이루게 된다.

2) 이별의 격리 체험과 성장

강신재의 「젊은 느티나무」는 성과 죄의 문제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며 성 에너지를 성장에 어떠한 방법으로 발전적인 상황으로 이끌어 나가는가를 보여준다.

이 소설은 부모의 재혼으로 주인공인 18세 고등학생 숙희가 22세 대학생 현규와 의붓 남매로 만나 사랑과 갈등을 겪는 이야기이다. 숙희가 화자의 입장으로

32) 위의 책, p. 16.

33) 박학희, 앞의 논문, p. 59.

서술되며 그녀의 성적 성숙과정을 그리고 있다. 숙희는 현규를 만나 남매 이상의 사랑의 감정을 느끼지만 한편으로 가족을 사랑한다는 것에 죄의식을 갖는다. 결국 깊어가는 사랑에 죄의식을 느끼며 두 남녀는 이별을 선택하게 된다.

이 소설의 중요한 서사적 양상은 14개의 단락으로 요약하여, 이성 느낌 시퀀스→ 만남과 혼란 시퀀스→사랑 시퀀스→이별 시퀀스로 묶어 문학적 의미와 주제의 생성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이성 느낌 시퀀스>

- ① 그에게서 언제나 풍기는 비누 냄새는 나의 가슴속으로 저릿하게 퍼져나간다.
- ② 그는 늘 내 방에 와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하며 나는 그것을 준비하며 비밀스러운 즐거움을 느낀다.
- ③ 나는 그와 함께 테니스 운동을 자주 한다.
- ④ 그는 약수터에서 물을 떠서 내 입가에 대주는데 그 얼굴에서는 강한 감정의 움직임이 나타났고 그것에 나는 ‘기쁨’을 느낀다.

<만남과 혼란 시퀀스>

- ⑤ 재작년 엄마의 재혼으로 새아버지 무슈리와 현규 오빠를 만나게 된다.
- ⑥ 엄마가 삶의 활기를 찾은 것 같아 기뻐지만 현규에 대한 나의 마음에 괴로움을 느낀다.

<사랑 시퀀스>

- ⑦ 어느 날 K장관의 아들 지수로부터 러브레터를 받는다.
- ⑧ 현규와 마주치기조차 힘든 상태에서 어지러운 생각을 하며 산책을 하고 있는데 지수를 만나 집에까지 같이 오게 된다.
- ⑨ 집으로 돌아온 나에게 현규는 뺨을 때렸으며 나는 기쁨으로 가슴이 터질 것 같다.

<이별 시퀀스>

- ⑩ 밤에 우리는 어두운 숲 속을 산책하였는데 나는 그에게 안겨버린다.
- ⑪ 엄마가 새아버지 무슈리가 있는 미국으로 가게 되자 나는 현규와 단 둘이 있는 것이 겁이 나서 서울을 떠나 할머니 댁으로 간다.
- ⑫ 날마다 시골에 있는 뒷산에 올라가는데 어느 날 현규가 나타난다.
- ⑬ 현규는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 헤어져 있는 것이라고 하며 서울에서 학교 생활을 계속할 것을 부탁한다.
- ⑭ 나는 그를 더 사랑해도 된다고 생각하며 젊은 느티나무를 안고 웃는다.

주인물 숙희는 현규와 의붓 남매로 만나 점차 이성을 느끼게 된다. 숙희는 의붓오빠 현규에게서 비누냄새를 맡는다. 이것은 숙희가 현규에 대해 짝튼 성이 감각 본능적 성임을 나타낸다.

숙희와 현규는 테니스 운동을 함께 자주 하는데 운동 후 약수터에서 물을 마시는 장면에서는 이성관계의 분위기를 자아낸다.

그리고 그는 허리를 굽혀 표주박으로 물을 뿜었다. 그는 그것을 내 입가에 대어주었다. 조용한, 낮은 표정을 하고 있었다. 나에게 보이는 일이 없는 자기 혼자만의 얼굴의 하나인 것 같았다. 나는 아주 조금만 마셨다. 그리고 얼굴을 들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나머지를 천천히 자기가 마셨다. 그리고 표주박을 있던 자리에 도로 놓았으나 아주 짧은 사이 어떤 강한 감정의 움직임이 그 얼굴을 휘덮은 것 같았다. 그는 내 쪽을 보지 않았다. 나는 돌연 형언하기 어려운 혼란 속에 빠져 들어갔으나 한 가지의 뚜렷한 감각을 놓쳐버리지는 않았다. 그것은 기쁨이었다. 34)

숙희와 현규는 표주박의 물을 같이 나눠 먹게 되는데 표주박의 같은 곳에 입을 대면서 간접 입맞춤을 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현규에게서 ‘어떤 강한 감정의 움직임이 그 얼굴을 휘덮은 것 같았다.’³⁵⁾라고 기쁨을 느끼게 되는데 이것은 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커져가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숙희는 현규의 마음이 자신과 같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34) 강신재, 『젊은 느티나무』, 민음사, 2005, p. 13.

35) 위의 책, p. 13.

숙희가 K장군의 아들 지수로부터 러브레터를 받게 되며 어느 날 산책하다 지수를 만나게 되어서 집에까지 같이 오게 되는데 이를 알고 있는 현규는 숙희에게 어디 갔다 왔냐며 뺨을 때린다. 숙희는 화끈거리고 아팠지만 곧 이것은 현규가 자신에 대한 사랑임을 알고 가슴 터질듯이 기뻐한다.

전류 같은 것이 내 몸속을 달렸다. 나는 깨달았다. 현규가 것처럼 자기를 잃은 까닭을. 부풀어 오르는 기쁨으로 내 가슴은 금방 터질 것 같았다. 나는 침대 위에 몸을 내던졌다. 그리고 새우처럼 팔다리를 꼬부려 붙였다. 소리 내며 흐르는 환희의 분류가 내 몸속에서 조금도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밤에 우리는 어두운 숲 속을 산보하였다.

어두운 숲 속으로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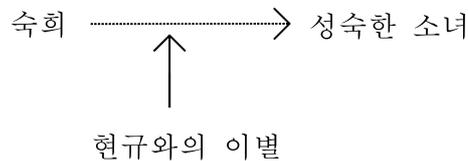
그리고 나는 그에게 안겨버렸다.³⁶⁾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둘은 어두운 숲 속을 산보하다가 끝내 포옹까지 하게 된다. 두 사람은 이성적인 감정을 느끼지만 ‘남매’라는 현실이 큰 장애로 가로막고 있다. 숙희는 현규와 함께 하는 시간 기쁨에 넘치다가도 오누이, 동생이라는 현실을 바라보며 맘속에서 혐오와 공포를 자아낸다. 이를 통해 숙희의 심리적 갈등과 연인이 되고자하는 두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겪는 서사전개를 살펴볼 수 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아버지가 교환교수로 머물러 있는 미국으로 가게 되는 상황이 생기면서 이 둘은 격리 체험을 하게 된다. 숙희는 어머니가 계시지 않는 집에 현규와 단둘이 있을 생각을 하니 감당하기 힘들었고 결국 서울을 떠나 할머니가 계신 시골로 내려가게 된다. 그리고 다시 서울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며 학교에도 다니지 않겠다고 결심을 한다. 이러한 결심을 하는 숙희에게서 사회적 관습을 깨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을 엿볼 수 있다. 단 둘이 남게 되는 서울 집에서 감당하기 힘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해결책을 모색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더 이상 부적절한 관계로 발전하지 않고 가출, 비행이라는 극단적인 선택 대신에 현규와의 이별을 선택한 것이다. 이러한 선택으로 고통과 시련을 겪게 되지만 그 과정은 성장을 이루는 계기가 된다.

36) 위의 책, p. 30.

“숙희는 돌아와서 학교에 가야 해. 무엇이든 다 잊고 공부를 해야 해. 나도 그렇게 할 작정이니까. 우리는 헤어져 있어야 해, 헤어져서 공부해야 해, 어머니가 떠나시려면 비용도 들 테니까 집은 남 빌려주자고 말씀드렸어. 내가 갈 곳도 생각해 놓고, 숙희도 어머니 친구댁에 가 있으면 될 거야. 그렇게 헤어져 있어야 하지만, 숙희, 우리에게겐 길이 없는 것은 아니야. 내 말을 알아들어 줄까?” <중략> 나는 젊은 느티나무를 안고 웃고 있었다. 평평 울면서 온 하늘로 퍼져가는 웃음을 웃고 있었다. 아아, 나는 더 사랑하여도 되는 것이다…….37)

두 사람은 사랑으로 인해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거나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며 상황을 지혜롭게 대처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이 선택한 이별은 영원한 이별이 아닌 다시 만나기 위한 이별이라고 믿고 있다. 그러므로, 이 작품은 실천적 차원의 성장소설로서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



숙희는 현규와의 이별을 통해서 성숙한 소녀로의 성장을 이룬다는 점에서 실천적 차원의 성장소설의 서사모형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를테면 숙희는 현규와의 이별 즉, 통과이레의 과정 중 격리 체험을 통해 자아의 성숙을 이루며 성숙된 인간으로 사회로의 복귀를 준비하게 되는 것이다.

3) 사랑의 본질과 의미 발견

이재민의 『사슴벌레 소년의 사랑』은 13살 주인공 은수가 피부병을 치료하기 위해 찾아 간 산골 약수터에서 순희 누나를 만나 첫눈에 사랑에 빠지게 되는 사춘기 소년의 내면을 그린 작품이다. 이 소설에서 등장하는 ‘사슴벌레’는 사랑의 의미를 깨우치게 하는 상징물이라 할 수 있다. 사슴벌레 잡기를 좋아하며 소유하려는 ‘나’에게 사랑한다면 소유하거나 집착하는 것이 아닌 자유롭게 해주어야 한다는 누나의 말에 사랑의 본질과 의미를 깨우쳐 내면적 성숙을 이룬다.

37) 위의 책, p. 33.

이 소설의 중요한 서사적 사건은 19개의 단락으로 요약하여 약수터에서의 만남 시퀀스→ 짝사랑 시퀀스→ 진정한 사랑의 의미 시퀀스로 묶어, 문학적 의미와 주제의 생성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약수터에서의 만남 시퀀스>

- ① 은수는 피부 가려움증을 고치기 위해 여름방학을 이용해 엄마와 미송리 산 속에 있는 유명한 약수터에 머물게 된다.
- ② 은수는 서울에서 폐병을 고치기 위해 약수터를 찾은 순희를 만나게 되는데 첫눈에 사랑에 빠진다.
- ③ 은수는 검은 피부의 외모와 어린 학생이라는 것에 부끄러워한다.
- ④ 은수와 순희는 함께 꽃구경을 다니면서 가까운 사이가 된다.

<짝사랑 시퀀스>

- ⑤ 약수터에 온 지 일주일이 되어서 엄마가 은수에게 집에 가자고 하지만 은수는 순희와 헤어지기 싫어서 등이 많이 가렵다고 한다.
- ⑥ 순희는 약수터에 있는 통나무에 앉아 남자친구를 기다리는데 은수는 질투심을 느낀다.
- ⑦ 은수는 서울에서 요양 온 기영이를 보며 경쟁자로 여기게 되고, 야영을 온 세 청년으로부터는 누나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 ⑧ 은수는 기영이와 ‘사슴벌레 손가락 집어넣기’ 시합을 하게 되는데 순희 앞에서 용감하게 해내자 뿌듯함을 느낀다.
- ⑨ 어느 날 목욕터에서 목욕을 하는 순희의 모습을 목격하는데 은수의 가슴은 심하게 뛰어서 터질 것만 같다.

<진정한 사랑의 의미 시퀀스>

- ⑩ 은수가 사슴벌레를 잡아 가져가려고 하자 순희는 진정으로 사슴벌레가 좋다면 자유롭게 해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 ⑪ 순희가 사랑은 소유하는 게 아니라고 하자 은수는 마음속으로 사랑이란 쟁취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⑫ 어느 날 아침 순희는 수건에 피가 묻어날 정도로 심하게 기침을 한다.
- ⑬ 폐병에 잠죽이 좋다는 말을 듣고 은수는 다른 사람 몰래 잣을 판다.
- ⑭ 순희는 남자 친구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는데 은수는 몸이 좋지 않은 그녀를 보면서 차라리 남자 친구가 나타났으면 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 ⑮ 순희의 남자 친구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고 몸 상태는 점 점 나빠진다.
- ⑯ 순희는 약수터를 떠나 서울로 가게 되었고 은수는 몰래 탄 잣을 순희에게 내밀며 인사를 한다.
- ⑰ 이별 후 은수는 슬픈 마음을 하고 사슴벌레를 보러 갔는데 순희의 카세트를 발견한다.
- ⑱ 사슴벌레를 놔주면 카세트를 주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킨 순희를 생각하며 사슴벌레를 놓아주기로 결심한다.
- ⑲ 은수는 누군가를 좋아하거나 사랑한다면 구속이 아닌 자유롭게 해주어야 한다고 말한 순희의 말을 마음에 새긴다.

은수는 순희 누나의 향기를 맡으며 이성의 감정이 시작된다. 달맞이꽃 향기와 같은 누나의 향내를 맡으며 취할 것 같은 은수는 순희 누나가 달맞이꽃과 닮았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이 냄새를 맡고, 신체적 접촉을 하는 등의 행위는 ‘성 모티프’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라 할 수 있다. 달맞이꽃의 꽃말은 ‘말 없는 사랑, 기다림’인데 은수가 순희 누나를 향한 마음이기도 하며 순희가 기다리는 남자 친구에 대한 마음이기도 하다. 은수는 순희 누나를 사랑하게 되면서 다른 남자로부터 누나를 보호해야 하고 뺏기고 싶어 하지 않는다. 서울에서 요양을 하기 위해 약수터를 찾은 또래 친구 기석에게는 순희 누나를 두고 경쟁자로 여기게 된다. 자신보다 키도 크고 몸집도 크며 자신을 무시하기까지 한다고 생각을 하며 기석 이와 싸워서 이길 방법을 생각한다. ‘사슴벌레 집게에 손가락 집어내기’ 시합을 하게 되는데 이긴 사람이 사슴벌레를 갖는 내기이다.

천천히 사슴벌레를 집어 들었다. 두 아이의 시선이 내 얼굴에 집중되었다. 나는 태연한 척 웃으려고 했다.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고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숨이 차기 시작했다. 하지만 내색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했다. 조금 전부터

매미 울음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아니, 매미뿐 아니라 누나가 손에 들고 있는 소형 카세트에서 나는 음악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등허리에 땀이 흘러내렸다.³⁸⁾

위의 글에서 볼 수 있듯이 은수는 기석이와의 대결에서 순희 누나 앞에서는 용감함을 보이기 위해 무서움과 고통은 극복해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듯이 이 대결은 누나를 그 누구에서도 뺏기지 않고 지키기 위한 사랑의 투쟁인 것이다.

은수는 첫 만남에서부터 하얀 피부를 하고 긴 생머리의 순희 누나를 보며 외모적으로 풍기는 성적 매력에 빠진다. 그리고 좋아하는 이성으로부터의 성적 호기심은 더욱 커진다. 이것은 또래 여자 친구 기숙이와는 다른 감정이다.

은수와 순희 누나는 병을 치료하기 위해 목욕터에 가서 목욕을 하는데 순희 누나가 목욕을 할 때에는 은수가 망을 봐주고는 한다. 순희 누나가 목욕을 하는 동안 물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목욕하는 상상을 하면서 은수는 가슴이 두근거린다. 그러다 누나를 훑쳐보고 싶은 욕망이 커지고 목욕하는 광경을 목격하게 된다. 은수는 가슴이 터져버릴 듯한 느낌을 경험하게 되고 한편으로는 죄책감을 느끼며 죽어버리는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하게 된다.

순희 누나에게는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 바로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이다. 순희 누나는 약수터 입구에서 남자 친구가 오기를 손꼽아 기다린다. 이런 누나의 모습을 보며 은수는 질투심을 느끼고 그 남자친구를 ‘쪼다’라고 생각한다.

짝사랑을 하고 있는 은수는 예쁜 옷을 차려입고 남자친구가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누나의 모습에 화가 나기도 한다. 하지만 며칠을 기다려도 오지 않고 병이 낫지 않는 누나를 보며 질투의 마음에서 걱정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된다.

‘누나가 아무리 폐가 나쁘다고 해도 조금도 겁나지 않아. 그까짓 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 쪼다한테 정신만 빼앗기지 않으면 돼. 그것 때문에 기분이 좀 나았는데 이젠 괜찮아. 누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미안해, 누나.’³⁹⁾

은수는 병이 나아지지 않고 피를 토하는 누나에게 폐에 좋다는 잣을 주기 위

38) 이재민, 『사슴벌레 소년의 사랑』, 사계절, 2003, p. 85.

39) 위의 책, p. 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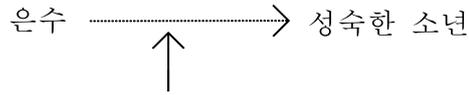
해 위험을 무릅쓰고 잣나무에 올라가 잣을 따다. 이런 은수의 변함없는 사랑은 기다려도 오지 않는 남자 친구를 원망하지 않고 이해하는 순희 누나의 사랑에서 배운 것이기도 하다.

“네가 제대로 이해할지 모르지만, 진정으로 사슴벌레가 좋다면, 사슴벌레가 자유롭게 살게 해 주어야 하는 거야.” <중략>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야. 누구를 좋아하거나 사랑한다면 구속하거나 소유하려고 하면 안돼. 자유롭게 해 주어야 하는 거야. 그게 진정한 사랑이야.”⁴⁰⁾

은수는 사슴벌레를 좋아하기 때문에 잡아서 소유하려고 한다. 이런 은수에게 순희 누나는 사랑한다면 상대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해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말은 순희 누나 스스로가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남자친구에 대한 자신의 다짐이기도 하다. 폐병을 앓고 있는 순희 누나도 사랑하는 사람을 자유롭게 놓아주어야 할 처지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은수는 사랑이란 투쟁이라고 생각하며 상대를 소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픈 와중에도 은수와 의 약속을 지킨 순희 누나를 보며 생각이 변하게 된다. 은수에게 사슴벌레를 놓아주면 카세트를 주겠다고 한 약속을 지킨 것이다. 이런 누나에게 감동을 느끼며 은수도 사슴벌레를 자유롭게 놓아주게 된다. 은수가 사슴벌레를 놓아준 행위는 순희 누나에 대한 소유와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달았다는 의미이다. 사랑과 본질의 의미를 깨달은 은수는 ‘순희 누나, 내년 여름에 꼭 만나요. 쪼다랑 같이 와도 좋아요. 건강하기만 하면 돼요.’라고 편지를 쓴다. 은수는 누나에 대해 체념하며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더욱 자유롭게 폭넓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지니며 한 층 성장하게 된다. 그러므로 주인공 은수는 순희 누나와의 사랑을 통해서 성숙한 소년으로 성장한 실천적 차원의 성장소설적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40) 위의 책, pp. 140~141.



순희 누나의 성숙한 사랑

결국, 은수는 순희 누나의 성숙한 사랑을 통해서 성숙한 소년으로 성장한다는 점에서 실천적 차원의 서사모형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처럼 은수는 순희 누나를 사랑하면서 그리고 순희 누나의 성숙한 사랑을 지켜보면서 진정한 사랑이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해주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으며 성장을 이룬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서 ‘성과 사랑의 체험’ 모티프의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밀 공유 현상이 나타난다. 「소나기」에서 소녀는 죽기 전 입고 있던 옷을 그대로 입혀서 물어달라고 하는데 이것은 소년과의 추억과 사랑을 간직하겠다는 의미이며 소녀와 소년, 둘만 아는 비밀이다. 「젊은 느티나무」에서는 의붓남매가 사회적 규범을 이탈하여 서로 비밀스럽게 사랑을 하게 되는 이야기이며 『사슴벌레 소년의 사랑』에서 은수는 순희 누나의 병에 잦아 좋다는 말을 듣고 약수터에 있는 잣나무에서 잣을 따게 되는데 이 사실은 은수와 순희 둘만이 아는 비밀이다.

둘째, 성의 발견은 감각단계에서 시작되어 점차 정신적 단계로 성숙되어간다.

「젊은 느티나무」에서 숙희는 의붓오빠 현규에게서 비누냄새를 맡으며 감각적으로 이성적인 감정이 싹트기 시작하고 「사슴벌레 소년의 사랑」에서 은수는 순희 누나의 달맞이꽃과 같은 향기를 맡으며 이성의 감정을 느낀다.

셋째, 주인공이 상대 이성을 통해서 성장을 하도록 도와주는 큰 조력자의 역할을 한다. 「소나기」에서 소년은 소녀와의 만남으로 이성에 눈을 떠가며 자아정체성을 형성하게 되고 「사슴벌레 소년의 사랑」에서는 순희 누나가 성숙한 사랑을 보여줌으로써 은수도 사랑의 본질과 의미를 깨닫는다. 그리고 「젊은 느티나무」에서 숙희는 현규와 이별이라는 시련을 겪게 되지만 현규와의 지혜로운 판단으로 성숙한 자아를 획득한다.

넷째, 남녀 두 인물 중에 한 사람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모두 함께 성장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2. 아버지 찾기

한국 문학에 있어서 아버지 찾기 모티프는 빈번하게 등장해왔다. 고구려 신화에서 유리 왕자가 아버지 주몽을 찾아가는 과정이나 바리공주 설화에서도 잘 드러나 있다. 이처럼 많은 신화, 설화 고소설 속에서 아버지 찾기 모티프는 자주 발견된다. 그런데 한국문학에서 아버지 부재는 아버지 거부와 아버지 찾기의 두 가지 양상으로 형상화되는 특성을 보여준다. 아버지는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의 표상성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전통을 상징하거나, 도덕적인 계율, 금지와 제지의 권위를 상징하며 또는 붕괴의 표상으로 등장한다. 따라서 문학작품에 있어서의 아버지의 가치와 이미지는 흔히 양면성을 지니고 나타난다. 뿌리를 찾거나 가계를 계승하는 식의 아버 찾기 이야기와 신구의 세대적인 갈등, 즉 일체의 기존적인 질서와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아버 죽이기(살부) 이야기가 유형성을 띤다. 이때 죽이기란 제거·부정 또는 극복으로서의 상징적인 의미임은 물론이다.⁴¹⁾

한국 현대사에 있어서 6·25 등 전쟁으로 인하여 아버지의 모습은 매몰되거나 부재된 존재들이었다. 이러한 사회적 파장으로 한국 문학에서는 고통스러운 유년 시절을 보내는 주인공들의 삶이 자주 등장한다. 이런 주인공들은 아버지의 부재로 인하여 가난과 궁핍이라는 경제적 고난과 힘겹게 싸우며 삶을 보낸다. 이처럼 아버지 찾기에서는 아버지의 힘과 권위에 대한 반항의 이야기와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시련과 고난을 다루는 서사가 지배적이다. 이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갈등→극복→화해의 과정으로 서사화 된다. 나아가 현대에 이르러서는 아버지가 ‘힘’의 상징과는 거리가 멀거나 주인공이 아버지를 ‘원망’하기 전에 ‘이해’를 하는 새로운 서사유형이 발견되기도 한다.

1) 아버지와 의 갈등과 화해

박기동의 「아버지의 바다에 은빛 고기떼」는 ‘나’와 아버지 관계 속에서 아버지를 거부하고 갈등을 겪다가 점차 화해로 나아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41) 이재선, 『현대 한국소설사 1945~1990』, 민음사, 2002, p. 431.

아버지는 몇 달에 한 번 집을 찾는데 주인공 ‘나’는 이런 온전하지 않은 가정에서 자라며 아버지를 거부하게 된다. 하지만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이러한 갈등을 극복하고 화해에 이른다. 이와 같이 아비 거부와 아비 찾기를 통하여 ‘나’가 성장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소설의 중요한 서사적 사건은 15개의 단락으로 요약하여, 낮선 아버지 시퀀스→반항과 가출 시퀀스→아버지와의 대화와 화해 시퀀스로 묶어 문학적 의미와 주제의 생성과정을 살펴 볼 수 있다.

<낮선 아버지 시퀀스>

- ① 그해 여름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왔다.
- ② 거친 턱수염과 송송 뚫린 땀구멍, 왼쪽 눈썹에는 칼집 흉터의 무서운 모습을 하고 있는 아버지가 나는 썩 내키지 않는다.
- ③ 어머니는 잠자리에 누운 나를 토닥거리며 아버지에게 또 떠날 거냐며 젖은 목소리로 물었고 아버지는 떠날 것이라고 속삭인다.
- ④ 나는 아버지의 가방에 세탁된 흰 속옷과 세면도구를 보면서 섭섭한 마음이 든다.

<반항과 가출 시퀀스>

- ⑤ 나는 아버지 앞에서는 꿈쩍도 못하는 한갓 어린아이인 것 같아 속이 비틀리고 슬퍼진다.
- ⑥ 삼학년이 된 나는 오학년 형들과 바다로 도망치려고 밤에 거룻배 하나를 훔치고 먼 바다로 향한다.
- ⑦ 이튿날 각자의 아버지에게 끌려가 흩어지고 나는 크게 혼이 나며 아버지의 등에 업혀서 돌아온다.
- ⑧ 내가 바다로 나가려는 이유는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 ⑨ 나는 어머니보다 나이 많은 여자와 형이나 누나로 불려야 하는 낯모르는 이들이 있는 아버지를 증오하면서 기다린다.

<아버지와의 대화와 화해 시퀀스>

- ⑩ 어느 날 아버지와 함께 밤낚시를 떠나게 되었고 그 동안 하지 못했던 대화를 나눈다.
- ⑪ 나는 아이들을 때리고 돈을 훔치는 등 사고 쳤던 일을 고백한다.
- ⑫ 아버지도 어릴 적 싸움을 많이 했던 이야기를 해주며 어른이 되어서도 싸울 일이 자꾸 생긴다고 어른이 되면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 ⑬ 잠시 후 고기가 잡혔고 나는 힘껏 잡아당겼지만 고기를 놓치고 만다.
- ⑭ 아버지는 더 큰 놈으로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내 어깨를 두드린다.
- ⑮ 하늘의 중심에 구름을 빠져나온 달은 둥그렇게 떠 있었고 바다에는 수많은 은빛 고기떼들이 반짝이고 있다.

‘나’의 아버지는 잊혀질만하면 나타나는 낯선 아버지이다. 아버지는 칼집 흉터가 나있고 치석 냄새를 풍기는 무섭고 싫은 존재로 기억한다. 그리고 어머니와 나의 곁을 언제 떠날지 모르는 바람과 같은 불안한 존재이다.

어쩌서 우리 모두는 아버지 앞에서는 꿈쩍도 못하는가. 온 세상은 온통 아버지의 천국이어야 하는가. 생각을 하면 할수록 더욱 내 속은 비틀리고 슬퍼지고 약해진다. 호주머니 속에서 손칼을 만지작거렸다. 칼침 따위는 무서워하지 않는 아버지. 그러나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나는 아버지에게 본때를 보여주어야 한다. 어린아이가 아닌 어떤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⁴²⁾

이와 같이 ‘나’는 아버지 힘에 대한 강한 불만을 갖고 있으며 아버지를 거부하고 아버지를 극복하고 싶어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어느 날 ‘나’는 아버지의 007가방에서 세탁된 흰 속옷과 세면도구들이 정리된 것을 보고 몹시 서운함을 느낀다. 여기에서 ‘나’는 아버지를 증오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버지를 기다리고 그리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늘 떠나 있는 아버지’, ‘아버지는 또 떠나고야 말 것.’ 이라고 ‘나’의 마음속에 각인되어 있으며 나도 아버지처럼 어디론가 떠나고자 하는 반항심이 생겨난다.

42) 박기동, 『아버지의 바다에 은빛 고기떼』, 책세상, 2008, pp. 37~38.

우리들은 바다로 도망치려고 했었다. 다섯 명이었다. 내가 제일 어렸다. 나는 삼학년이었고 오학년짜리가 하나, 그리고 나머지 셋은 학교를 집어치우고 시장 바닥을 돌아다니던 아이들이었다. 밤에 거룻배 하나를 훔쳐냈다. 어디든 갈 수 있다고 믿었다. 바닷물길이 우리들을 먼 바다로 실어 날랐다. 우리들은 기껏 읍내의 불빛이 우리 시야에서 사라지는 순간에 이미 바다의 끝까지 다 온 듯한 기분에 빠져 있었다.⁴³⁾

‘나’는 반항과 가출을 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강한 불만을 보여준다. 이러한 아버지와 아들의 해체의 에너지는 가정에 위기를 조성하게 한다. 여기에서 가정의 위기가 극단적으로 치닫지 않게 하는 역할을 어머니가 하고 있다. 어머니는 매일 아버지를 기다리고 아버지가 칼집을 맞아 피를 흘려오면 정성스레 간호를 해준다. 그리고 떠나는 아버지를 따라가고 싶어 하며 부부의 정을 보이려는 하였다. 이렇게 가정을 지키고 있는 어머니는 아버지와 아들이 화해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여 준다. 아버지와 ‘나’가 밤낚시를 갈 수 있게 고무장화와 정성스런 음식도 준비해준다. 아버지와 나는 밤낚시를 하며 둘만의 시간을 보내게 되고 그 동안 하기 힘든 대화를 한다.

“알고 있잖아요. 엄마가 다 일러바쳤을걸요. 그렇죠? 지갑에서 돈을 훔쳐냈고 학교를 까먹었고 공부는 꼴찌만 하고 신발장에서 선생님의 구두를 훔쳐 바닥을 칼로 도려냈고 돌로 아이들을 때렸고…….” <중략> 잠깐 본 아버지의 눈빛이 이상하게 풀어진, 부드럽고 어두운 잿빛이었다.

“너만 했을 땐 굉장했었다. 아마 너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못하진 않았을 거다. 단 하루도 싸우 앓구선 못 배겼지. 그런데 말이다. 어른이 되고 나가서 싸워야 할 일이 자꾸 생기지 뭐냐.”⁴⁴⁾

‘나’는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말썽만 부린다는 것을 어머니를 통해 들었을 거라며 조심스레 말을 꺼낸다. 아들의 죄책감 어린 고백에 아버지는 질책하기 보다는 자신이 어릴 적에는 더 심한 싸움꾼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주며 공감을 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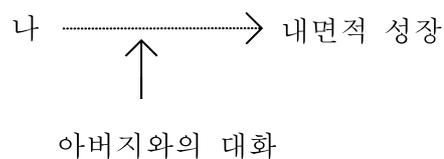
43) 위의 책, pp. 38~39.

44) 위의 책, p. 47.

“아버진 너무 많은 걸 가지려 했는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난 아무것도 얻을 못했다. 그건 마치 구름 잡기와도 비슷한 거겠지. 잡았다 싶은 순간이면 어느새 손가락 사이로 빠져 달아나는 그것 때문에……. 너도 어른이 되면 이해할 거다.”⁴⁵⁾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면서 나는 아버지가 무섭고 강하기만한 남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잘 살기 위해 발버둥 쳤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 초라한 남자였다. 결국 아버지는 내가 증오하고 극복하기보다는 포용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러한 나의 생각의 변화는 ‘나’의 자아가 한층 더 깊고 성숙해 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나’가 고기를 놓치자 아버지께서는 ‘바다엔 고기가 얼마든지 있고 그 보다 더 큰 놈을 잡을 수 있다고’⁴⁶⁾하며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이러한 아버지의 격려는 ‘나’에게 삶을 향한 용기와 희망이 된다. 하늘의 중심에 어느 틈엔가 구름을 빠져 온 달이 둥글게 떠 있는 것처럼 아버지와 나의 먹구름 같은 관계도 청산되어 가고 있는 순간이다. 이렇게 ‘나’는 성숙된 모습으로 어른 세계로 진입하고 있으며 아버지를 거부하기 보다는 화해를 이루며 아버지를 찾게 된 것이다. 아래 도식은 ‘나’가 아버지와 대화를 중개자로 하여 내면적 성장을 이루는 과정을 보여준다. 즉, 아버지와 대화를 통해서 내면적 성장을 함으로써 인식적 차원의 성장소설로 분석할 수 있다.



‘나’는 아버지와 밤낮시라는 시간을 보내며 그 동안 쉽게 하지 못했던 속 깊은 대화를 나눈다. 대화를 통해서 아버지는 강하고 무서우며 증오해야 할 대상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되며 나아가 아버지의 격려의 말에 세상을 헤쳐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얻는다. 이처럼 아버지를 거부하는 소년에서 아버지를 이해하고 찾게 되

45) 위의 책, p. 48.

46) 위의 책, p. 49.

는, 내면적으로 성장한 소년이 된 것이다.

2) 아버지 거부와 아버지 찾기

김소진의 「자전거 도둑」에서 주인공 ‘나’는 <자전거 도둑>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유년 시절에 겪었던 내면의 상처를 공유하게 된다. 유년 시절 회상과 고백을 하며 현재의 일과 과거의 일이 교차되어 이야기가 전개된다. ‘나’는 유년 시절 아버지로 인하여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되어 아버지를 부정하고 거부하지만 결국 화해에 이른다. 이 소설에서도 아비 거부와 아비 찾기의 이중적 서사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 소설의 중요한 서사적 사건은 18개의 단락으로 요약하여, 자전거 도둑 시퀀스→아버지의 도둑질 시퀀스→유년시절 회상과 고백 시퀀스로 묶어 문학적 의미와 주제의 생성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자전거 도둑 시퀀스>

- ① 나의 자전거를 몰래 훔쳐 타는 자전거 도둑이 생겼다.
- ② 자전거 도둑은 아파트 위층에 사는 에어로빅 강사이다.
- ③ 나는 순간 <자전거 도둑>이라는 영화의 장면을 떠올리며 비디오 시청을 한다.
- ④ 영화 속 아버지 안토니오는 자전거를 도둑맞고 다른 사람의 자전거를 훔치다 주인과 경찰로부터 아들의 면전에서 봉변을 당한다.
- ⑤ 무너져 내리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목격하고 평생 씻을 수 없는 내면의 상처를 끌어안고 사는 브루너를 보면서 자신의 삶과 같다고 공감한다.

<아버지의 도둑질 시퀀스>

- ⑥ 한 평도 안 되는 구멍가게는 아버지의 유일한 생존의 끈이다.
- ⑦ 어느 날 가게 물건을 정리하는데 소주 두 병이 모자라서 아버지와 나는 거래처 수도상회에 찾아가지만 흑부리 영감에게 면박만 당한다.
- ⑧ 어느 날 다시 아버지와 나는 수도상회에 물건을 떼러 갔는데 아버지는 진로소주 두 병을 훔친다.

- ⑨ 흑부리 영감은 다시 물건을 세보자고 하고 아버지는 겁에 질린다.
- ⑩ 흑부리 영감은 두 병이 더 들어간 것을 밝혀내고 나는 도둑이라고 말하며 희생한다.
- ⑪ 호되게 혼줄을 내야 한다는 흑부리 영감의 말에 아버지의 손이 나의 얼굴을 무섭게 내리친다.
- ⑫ 나는 아버지의 피어 있는 눈물을 보며 애비라는 존재가 되지 않겠다고 다짐 한다.

<유년시절 회상과 고백 시퀀스>

- ⑬ 나는 자전거를 훔쳐 탔던 서미혜와 친해지고 그녀의 집에서 <자전거 도둑> 비디오를 같이 시청한다.
- ⑭ 영화를 보고 난 후 어릴 적 흑부리 영감에게 복수했던 일을 고백한다.
- ⑮ 나는 수도상회를 침입한 뒤 물건을 엉망으로 만들고 돈궤에다 꺾직한 대변을 찐다.
- ⑯ 이 일로 흑부리 영감은 충격을 받게 되고 결국 수도상회는 문을 닫는다.
- ⑰ 그녀도 자신이 간질병을 앓던 오빠를 죽음에 이르게 했던 과거의 일을 고백한다.
- ⑱ 이 날 이후 그녀와 만나지 못했고 어느 날 그녀는 다른 자전거를 타며 낯선 사람의 모습으로 내 곁을 스쳐지나간다.

어느 날 나의 자전거를 훔쳐 타는 도둑이 생겼다. 자전거 도둑은 바로 같은 건물에 사는 에어로빅 강사인 젊은 여자이다. 이 여자는 자신의 것인 것 마냥 옷자락을 휘날리며 유유자적하게 자전거를 타고 다녔다. 이런 여자의 모습에 ‘나’는 묘한 흥분감에 사로잡혔고 불현듯 영화 <자전거 도둑>의 장면이 떠올라 와인을 허겁지겁 부어 마시며 영화를 시청하였다.

이 영화를 볼 때마다 난 무엇보다 외로움을 느꼈다. 아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아버지의 권위를 깡그리 무시당한 안토니오의 무너진 등이 견딜 수 없어 콧등이 시큰해졌고, 그보다는 무너져내리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목격해야 하는, 그럼으로써 평생 셋

을 수 없는 내면의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갈 어린 아들 브루노 때문에 나는 혀를 깨물어야 했다. 왜? 왜냐고? 그건…… 빌어먹을, 내가 바로 또다른 브루노였으니까……47)

<자전거 도둑> 영화에서 브루너는 무너져 내리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목격하게 되는데 ‘나’는 자신의 상황과 같다고 고백한다. 진로 소주 두 병을 훔친 것이 발각되자 겁에 질린 송아지처럼 눈에 흰 자위가 유난히 많아진 눈동자를 했던 아버지를 떠올리게 했고, 아버지의 비참한 모습을 지켜봐야 했던 브루너는 자신과 같다고 생각하며 내면의 상처로 남았던 유년 시절의 기억을 떠올린 것이다.

결국 흑부리영감은 두 병이 더 들어간 것을 밝혀내고 아버지에게 해명을 요구했다. 나는 내가 희생양이 되어 함을 느꼈다. 예, 맞아요. 그건 말예요, 제가 영감님 몰래 넣은 건데요…… 왜냐하면 접때접때 우리집에서 사실 두 병을 빠뜨리고 갔기 때문에 응, 썸 썸이어서요……48)

구멍가게는 아버지에게 있어서 유일한 수입원이자 생존이유였으며 아버지는 구멍가게에 대한 자존심은 각별하다. 어느 날 아버지와 수도상회에 물건을 떼러 갔는데 아버지는 진로 소주 두 병을 훔친다. 이 일은 흑부리 영감에게 발각되었고 ‘나’는 희생을 자진하여 아버지 대신 도둑이 된다. 그리고 흑부리 영감에게 굶질거리며 나의 뺨을 내리치는 아버지를 보면서 ‘차라리 죽는 한이 있어도 애비라는 존재는 되지 말자.’49)라고 다짐한다. 이와 같이 영화 속 브루너와 ‘나’는 아버지의 비참한 모습을 바라보며 내면의 상처를 갖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이들이 보여주는 아버지에 대한 저항과 거부는 기존 질서를 유지해가는 상징으로서의 아버지의 동일성에 대한 저항이고 거부인 것이다.50) 하지만 이러한 아버지의 거부와 증오의 감정은 어느 날 화해와 애증의 감정으로 전이된다.

아버지가 내 등딱 소리에 선잠이 달아났는지 부엌 앞 나무의자에 나와 앉아 담배

47) 김소진, 『자전거 도둑』, 문학동네, 2002, p. 150.

48) 위의 책, pp. 153~1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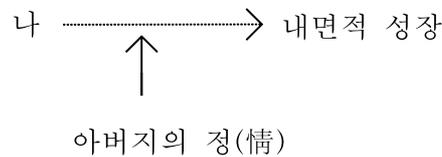
49) 위의 책, p. 155.

50) 최현주, 「한국 현대 성장소설 고찰 I - 부권부재 모티프를 중심으로」, 한국현대소설학회, 1999, p. 379.

를 빼물었다. “더위를 먹었니? 중복 되기 전에 인절미라도 해먹어야 하는데 ……휴우.”⁵¹⁾

아버지는 흑부리 영감의 수도상회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하수구 냄새를 풍기며 집으로 돌아온 ‘나’에게 더위를 먹은 것 같다며 건강을 걱정한다. 이 과정에서 ‘나’는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따뜻한 정을 느끼게 되고 아버지를 향한 증오의 감정이 애정으로 변화하며 화해에 도달한다.

따라서 이 소설에서는 아래 도식이 지시하는 것처럼 무능하게만 보이던 아버지를 증오하고 거부하다가 아버지가 보여주는 따뜻한 정에 의해 화해에 이르게 되고, 주인공 ‘나’가 내면적 성장을 이루는 과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인식적 차원의 성장소설로 설명할 수 있다.



즉, ‘나’는 아버지의 정(情)을 중개자로 하여 내면적 성장에 이르는 서사모형을 보여준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를 향한 마음이 극단적으로 치닫지 않고 변화하며 내면적 성장을 이루며 어른이 되어가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이처럼 이 소설에서는 아버지란 존재가 성장하는 아들에게 있어서 거부의 존재이자 찾기의 대상으로 병치되어 양면성이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상상 속 만남과 기다림

김애란의 「사랑의 인사」는 아버지의 부재를 소재로 하는 소설이다. 소설 속 주인공은 어린 시절 공원에서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는다. 이 소설에서 흥미로운 것은 ‘나’의 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상상적 전도이다.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나’는 이런 상황으로 절망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아버지가 실종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아버지를 기다리다가 결국 아버지를 찾고 성장을 이뤄나가는 서사로 전개된다.

51) 김소진, 앞의 책, p. 165.

이 소설의 중요한 서사적 사건은 16개의 단락으로 요약하여, 사랑의 인사 시퀀스 → 실종 시퀀스 → 기다림 시퀀스 → 만남 시퀀스 → 작별 시퀀스로 묶어 문학적 의미와 주제의 생성과정을 살펴 볼 수 있다.

<사랑의 인사 시퀀스>

- ① 나는 아홉 살 때 아버지가 사준 <세계의 불가사의>라는 책 속에서 구식 사진기에 찍힌 네시의 모습을 처음 보게 된다.
- ② 네시는 오래 전 사라진 공룡의 모습과 매우 비슷해서 내 가슴은 두근거린다.
- ③ 몇 년 후 뉴스데스크에서 한국의 백두산 천지에 네시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 ④ 나는 네시가 내게 ‘사랑의 인사’를 하러 온 것이라고 생각하며 손을 흔든다.

<실종 시퀀스>

- ⑤ 나는 어릴 적 아버지와 함께 간 공원에서 아버지가 사라져 기다렸지만 어두워져도 나타나지 않았다.
- ⑥ 미아보호소에 가서 아버지가 길을 잃어 버렸다고 말하며 찾아달라고 하였다.
- ⑦ 아버지는 찾을 수 없었고 아버지의 실종은 <세계의 불가사의>의 책 내용처럼 미스터리가 되었다.

<기다림 시퀀스>

- ⑧ 나는 ‘블루월드’라는 수족관 관리요원으로 일을 하며 상어만큼 인기가 좋다.
- ⑨ 수조 안에서 유리벽 너머를 바라보며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종류의 가족이 있는지 생각한다.
- ⑩ 아버지가 언젠가 나를 찾을 거라고 믿으며 아버지가 나를 잘 찾을 만한 곳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남 시퀀스>

- ⑪ 나는 5월 가족행사로 관람객을 위한 다이빙을 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 ⑫ 많은 인파 속에서 나를 바라보는 한 사내가 있었는데 그는 오래전 놀이공원에서 실종된 아버지이다.
- ⑬ 나는 주먹으로 유리벽을 두드렸고 아버지는 눈이 마주치자 놀란 표정을 짓는다.
- ⑭ 곧, 아버지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내게 한 손을 흔들며 인사를 한다.

<작별 시퀀스>

- ⑮ 사랑의 인사를 건네던 아버지는 곧 다른 물고기를 신기한 눈빛으로 구경하다가 다시 사라져 버린다.
- ⑯ 수족관 밖으로 나온 나는 잠수복을 얼굴 위로 뒤집어쓴채 ‘아빠, 아빠’하며 울음을 터뜨린다.

소설 속 주인공 ‘나’는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것이 아닌 아버지가 실종되었다고 의식을 바꾸며 현실을 비관하거나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왜 아버지가 실종되었는지 의문을 갖게 되고 이를 풀려는 상상력이 동원된다.

그런데 몇 년 후 한국의 백두산 천지에 네시가 나타났다.<중략> 그러자 한가지 확신이 들었다. 나는 고백받은 사람처럼 갑자기 부끄러워졌다. 그러니까 그는……나를 만나 온 것이다. 자신의 모습이 텔레비전을 통해 전국에 방송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내게 인사를 하러 온 것이다. 별 목적은 없다. 다만 한번의 인사, 사랑의 인사를 하러 온 것이다. ‘내가 여기 있다고. 내가 여기 있었다고. 하지만 이건 우리끼리의 비밀이고 나는 다시 사라질거라고…….’ 자세히 보니, 물보라는 네시가 지느러미를 팔랑거렸을때 만들어졌음직한 모양을 하고 있었다. 나는 지느러미가 없었으므로 한쪽 손을 가만히 흔들어주었다.⁵²⁾

52) 김애란, 『사랑의 인사』, 『달려라 아비』, 창비, 2005, pp. 143~144.

‘나’는 아버지가 사준 <세계의 불가사의> 책에서 본 네시가 백두산에 나타났다는 소식을 뉴스에서 듣게 되는데 주인공 네시가 자신에게 인사를 하러 온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느러미를 팔랑거리며 인사하는 저 물속의 동물인 네시를 아버지와 동일시한다. 아버지는 나에게 사랑의 인사를 건네며 ‘나’ 역시 같이 한쪽 손을 흔들며 인사를 건넨다. 이렇게 주인공은 네시라는 동물을 사라진 아버지라 생각하며 아버지와 만남을 상상하는 것이다. ‘사라지는 것들은 이유가 있고 사라졌다 다시 나타나는 것들은 반드시 할 말이 있다.’⁵³⁾라고 생각한 것처럼 ‘나’는 아버지의 실종에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며 언젠가는 자신 앞에 나타날 것이라는 희망을 갖는다. 그러던 어느 날 <심해의 신비편> 이라는 다큐를 시청하게 되는데 백두산에 나타난 네시를 아버지로 생각한 것처럼 심해 속 물고기들을 수많은 아버지로 생각하게 된다. 결국 ‘나’는 이러한 수중생물들을 아버지와 동일시하게 되고 ‘수족관 관리요원’으로 일을 하면서 아버지를 기다린다.

그런데 아버지가 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나는 아버지와 정면에서 눈이 마주쳤다. 아버지는 놀란 표정을 짓고 멍하니 서 있었다. 나를…… 알아보는 것 같았다. <중략> 나는 조마조마한 가슴으로 아버지의 대답을 기다렸다. 잠시 후 아버지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내게 한쪽 손을 가만히 흔들어주었다. 아버지가…… 웃고 있었다. <중략> 그러니까 아버지는 나를 만나러 온 것이다. 내게 인사를 하러, 다만 한번의 인사, 사랑의 인사를 하러 온 것이다.⁵⁴⁾

블루월드의 매우 바쁜 5월 어느 날 주인공 ‘나’가 수족관 안에 들어가 손님들을 맞이하는데 수족관을 향해 낮익은 얼굴을 보게 된다. 이 사람은 바로 아버지이다. ‘나’는 바로 아버지에게 달려가고 싶지만 수족관이 아버지와 나를 떼어내고 있으니 수족관에 몸을 바짝 붙이고 아버지를 향해 유리벽을 두드릴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순간 아버지와 눈이 마주쳤고 아버지는 ‘나’에게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며 주었다. ‘나’는 아버지가 사랑의 인사를 하기위해 미소 연습을 하다 이제야 자신을 찾으러 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버지의 사랑의 인사는 곧 작별인사가 된다.

53) 위의 책, p. 145.

54) 위의 책, pp. 158~159.

그런데, 아버지가 조금 이상했다. 아버지는 아이처럼 계속 웃기만 했다. 한손은 여전히 흔들며, 거북이와 나를 똑같은 표정으로 바라보면서…… 아버지는 내 등 너머를 바라보며 ‘우와’하는 표정을 지었다. 나는 초조하게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봤다. 아버지는 뭔가 결정한 듯 다른 곳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나는 눈을 부릅뜨고 미친 듯이 유리벽을 두들겼다. 아버지는 내 시야에서 빠른 속도로 멀어져갔다.⁵⁵⁾

자신을 꼭 찾아 올 것이라 생각했던 아버지를 만나지만 아버지는 아이와 같은 모습을 하였다. 그동안 ‘나’가 생각했던 아버지에 대한 기대와 환상이 무너지게 된 것이다. 이렇게 아버지와 인사는 작별인사가 되어버린다. ‘나’는 밖으로 나와 잠수복을 벗어던지고 땅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한다. 아버지와 제대로 된 만남을 갖지도 못하고 작별을 하며 ‘나’는 허탈감을 느낀다. 이것은 어릴 적 경험과 환상에서 벗어나 현실을 인정하며 좀 더 성숙해지는 순간이기도 하다. 이렇듯이 아버지와 만남은 짧게 끝났지만 그 동안 아버지를 기다리며 성숙한 청년이 될 수 있었다. 나를 버리고 간 아버지이지만 원망하지 않고 수중 생물로 대체하며 스스로를 위로하고 용서하면서 성장을 이룬 것이다.

“아버지가 길을 잃은 것 같습니다.”⁵⁶⁾

“오래전 놀이공원에서 실종된 나의 아버지가 어찌면 저 심해져 안에 있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⁵⁷⁾

“나를 놀이 공원에서 두고 사라진 것은, 자신에게 갈 공원이 따로 있기 때문이었을까?”⁵⁸⁾

“나는 나를 향해 너그러운 미소를 짓고 있는 아버지를 보며, 아버지가 내게 ‘그 동안 외계인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말하곤 치더라도 믿을 수 있을 것 같았다.”⁵⁹⁾

소설 속 주인공 ‘나’는 위의 대화와 생각에서 알 수 있듯이 초긍정적인 모습을 살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상상력은 해학스럽기까지하다.

55) 위의 책, pp. 159~160.

56) 위의 책, p. 146.

57) 위의 책, p. 150.

58) 위의 책, p. 155.

59) 위의 책, p. 159.

이와 같이 가족은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깊은 인간애를 발견하도록 도와준다.

셋째, 새로운 가족 윤리 변화를 제시하고 있다. 아버지 찾기에서는 아버지와의 갈등에서 아버지와의 화해에 이르는 것이 주요 서사로 나타나는데 김애란의 「사랑의 인사」에서는 아버지와의 갈등이 빠진 이전과는 다른 서사를 보이고 있다. 소설 속 주인공은 유년시절 자신을 공원에 버린 아버지를 원망하기보다는 아버지가 실종되었다고 걱정하며 기다리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는 아버지를 힘의 상징,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으로만 보는 것이 아닌 한 가족의 일원으로 보듬어줘야 하는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소설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아버지 부재에 구애 받지 않는 새로운 가족윤리를 제시하고 있다.

3. 죽음의 인식

인생에 있어서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삶의 필연적인 결말이다. 죽음은 자신이 체험할 수 없으므로 곧 타인의 죽음을 목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성장소설에서 나타난 죽음은 주인공이 타인의 죽음을 목격함으로써 죽음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갖게 되며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재인식하게 되는 계기를 제공하는 모티프이다.⁶⁰⁾ 주인공은 죽은 자와 영원한 이별의 의미를 깨닫고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지만 반면에 죽음은 모든 인간에게 다가올 운명이라고 깨닫고 각성의 계기가 되며 성장을 이루게 된다. 따라서 죽음을 바르게 인식하는 것은 주인공의 자아확립으로 연결될 수 있으며 성인사회로의 진입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1) 아버지의 죽음과 정체성 확립

김원일의 「어둠의 혼」은 일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어린 서술자가 유년기에 겪은 고통을 그리고 있으며 좌익운동을 하다가 죽음을 맞이한 아버지를 통하여 삶

60) 허선화, 앞의 논문, p. 23.

을 이해하며 성장해 나가는 이야기이다. 이 소설에서 ‘나’는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정체성 탐색이 이루어지는데 아버지를 향한 원망과 애증의 양가감정이 교차되어 나타난다. 아버지를 찾기 위해 이모집을 향하고, 지서에 있는 이모부를 찾아가게 되는데 결국 죽은 아버지를 발견하게 되는 외형적인 탐색의 과정이며 이러한 정체성 탐색의 과정이 구조화된 작품이다.⁶¹⁾

이 소설의 중요한 서사적 사건은 15개의 단락으로 요약하여, 굶주림 시퀀스→원망 시퀀스→어둠 시퀀스→죽음과 성숙 시퀀스로 묶어 문학적 의미와 주제의 생성 과정을 살펴 볼 수 있다.

<굶주림 시퀀스>

- ① 좌익운동에 가담한 아버지가 가정일은 돌보지 않아 가족들은 가난과 궁핍으로 고통을 받는다.
- ② 도시락이 없는 나는 학교에서 점심은 굶으며 몇 차례 쓰러진다.
- ③ 어머니는 이 집 저 집 다니며 양식을 꾸러 다니지만 더 꿀 집이 없을 지경이다.

<원망 시퀀스>

- ④ 한밤중에 순경들이 들이닥쳐 아버지를 찾으려 집안을 뒤졌고 어머니를 서로 데려 간다.
- ⑤ 나는 아버지가 밭다 못해 원수로 여긴다.
- ⑥ 피멍으로 돌아온 어머니는 꺼져가는 소리로 아버지와 순경에게 욕설을 퍼붓는다.

<어둠 시퀀스>

- ⑦ 어느 날 아버지가 순경에게 잡히고 곧 총살 당할 것이라는 소문을 듣게 된다.
- ⑧ 보리쌀을 얻으러 간 어머니는 오지 않고 누나는 큰 소리로 서럽게 운다.
- ⑨ 나는 누나와 분선이를 남겨두고 어머니가 계신 이모택을 찾아 간다.

61) 최현주, 앞의 논문, 「한국 현대 성장소설 고찰 I - 부권부재 모티프를 중심으로」, p. 375.

⑩ 어머니는 술집을 하는 이모택에서 신세타령을 하며 흐느낀다.

<죽음과 성숙 시퀀스>

⑪ 나는 이모부가 계신 지서를 찾아간다.

⑫ 경찰은 아버지가 총살당해 죽었다고 말한다.

⑬ 이모부와 함께 아버지의 주검을 찾아 나섰고 처참하게 죽어있는 아버지를 보게 된다.

⑭ 나는 아버지와 함께 거닐던 강둑을 찾아 아버지와 나누었던 이야기를 되새긴다.

⑮ 나는 어려움과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결심한다.

아버지는 좌익 운동가이며 어머니는 아버지를 대신해 일을 하며 생계를 책임지지만 생활고는 견디기 힘든 상황이다. 소설 속 ‘나’ 감해는 가난으로 인하여 배고픔에 시달리는 주인공이며, 감해 누나는 인지능력이 조금 부족한 ‘천치’로 불린다. 그리고 동생 분선은 그런 누나를 잘 돌보는 의젓한 여동생이다.

배가 지독히 고프다. 어머니는 아직 안 오신다. 보리쌀 뒷박을 들고 나간 지 한참 전이다. 두시간쯤 되었을 게다. 내가 영어 숙제 하고 있을 때, 어머니가 뒤질 놈은 뒤지더라도 어디서든 양식을 꾸어 오겠다고 대문을 나섰다. 이 집 저 집 너무 여러 집에서 양식을 꾸어다 먹었기에 더 꾸어줄 집도 없을 터이다.⁶²⁾

나는 학교에 갔다 올 때, 갑자기 하늘이 노랗게 보일 적이 있었다. 다리에 힘이 빠져 쓰러질 것 같았다. 조회 시간이나 학교에서 돌아올 때, 나는 몇 차례 쓰러진 적이 있다. 그럴 땐, 이렇게 죽는구나, 작년 여름 물에 빠져 죽은 병쾌처럼 나도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곤했다.⁶³⁾

위의 지문에서 보듯이 아버지의 죽음의 위기는 괴로운 상황이지만 그보다 ‘나’의 큰 괴로움은 ‘배고픔’이다. 하루 하루 제대로 먹지 못하면서 죽을지도 모른다

62) 김원일, 『어둠의 혼』, 문이당, 2005, p. 12.

63) 위의 책, p. 15.

는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결국 아버지는 좌익운동가담으로 무능력한 가장으로 전락하게 되고 가족들은 가난과 궁핍으로 배고픔에 고통 받게 된 것이다.

잠시 뒤, 이모님이 김이 오르는 선짓국밥 한 그릇을 가져온다. 나는 고맙다는 말도 없이, 국밥을 급세 먹어 치운다. 국물까지 남김없이 마셔 버린다. 김치가 있었으나 젓가락질을 해 보지 않았다. 내가 생각해도 너무 빨리 먹었다. 내 먹성을 혀 차며 지켜보는 이모님 보기가 쑥스럽다.⁶⁴⁾

이모택으로 보리쌀을 얻으러간 어머니를 배고픔에 허덕이며 기다리다 ‘나’는 이모택을 찾아간다. 어머니는 여기에 왜 왔냐며 욕을 퍼붓지만 이모님이 차려주신 밥을 먹고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넘겼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지고 안도의 한숨을 쉰다.

어머니 머리채를 잡아끌며 순경들이 떠나자, 우리 오누이는 갑자기 밀어닥친 두려움으로, 서로 껴안았다. 그날 밤, 누나는 내내 큰 소리로 울었다. 누나의 울음이 무섭기를 털어 주었다. 누나는 울다 지쳐 잠이 들었다. 분선이와 나는 서로 껴안은 채 밤새 소리 죽여 흐느꼈다. <중략> 죽어 뿌리라, 어디서든 콧 죽고 말아 뿌리라. 나는 아버지를 두고 속말을 되씹었다. 그런 날 밤, 나는 아버지가 밭다 못해 원수로 여겨졌다.⁶⁵⁾

좌익운동을 하는 아버지를 잡으러 순경이 들이닥쳐 집안은 엉망이 되어가고 아버지 대신 어머니가 순경에게 끌려가던 날 집안을 축대밭으로 만든 아버지로 부터 분노를 느끼며 원망을 한다. 그리고 피명으로 풀려난 어머니의 얼굴을 보며 보라색이 싫어지며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어두운 밤에 대해 두려움을 느낀다. 양식을 얻으러 간 어머니를 찾아 나서는데 “뚝뚝한 사람 죽는구만. 우짜모 몇 해 사이 사람이 그렇게 빈해 버릴 수가 있나.”⁶⁶⁾하며 아버지의 이야기를 주고 받는 아낙네들의 말을 듣게 된다. ‘나’는 아버지가 원망스러우면서도 눈물을 흘리며 연민의 정을 느끼기도 한다. ‘나’는 아버지가 좌익운동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변하여

64) 위의 책, p. 35.

65) 위의 책, p. 17.

66) 위의 책, p. 23.

가정은 뒷전인지, 무슨 죄를 졌기에 도망 다니는지 알 수 없었으며 순경은 왜 빨갱이라며 잔인하게 총살시키는지 의문으로 가득찰 뿐이다.

‘나’는 아버지가 체포되어 갔던 지서에서 이모부님과 함께 아버지의 죽음을 확인한다.

이모부님이 내 손을 놓더니 가마니를 뒤집는다. 나는 달빛 아래 희미하게 드러난 아버지 얼굴을 본다. 아버지 얼굴은 피칠갑을 한 채 찌그러졌다. 눈을 부릅떴다. 턱은 부었고, 입은 커다랗게 벌어졌다. 아버지가 저렇게 변해 버렸다는 걸 나는 믿을 수 없다. <중략> 이제 아버지 가슴은 그 두려운 보라색으로 변하고 말았다. 두 팔과 다리는 아무렇게 내던져졌다.⁶⁷⁾

어두운 밤에 아버지의 죽음을 확인하며 어린 가슴은 무너져 내리고 아버지는 거짓말만 하다 돌아가셨다고 또 한 번 원망을 한다. 보라색으로 변해버린 아버지의 가슴, 어머니의 피멍난 얼굴, 공포로 떨게 하는 어두운 밤은 ‘나’와 가족에게 닥친 불행을 표현하고 있다.

‘나’는 아버지의 죽음을 믿을 수 없다고 부인하며 집 바깥쪽에 있는 강둑으로 향한다. 그리고 그곳에서 ‘쉬지 않고 흐르는 이 강처럼 너도 쉬지 않고 자라거라.’⁶⁸⁾하신 아버지의 말이 떠오르며 아버지의 죽음을 실감한다. 그리고 아버지를 미워하고 원망하던 마음이 녹아들고 화해하기 이른다. 이 세상은 알아야 할 수수께끼가 너무 많아서 두려움이 밀려오지만 어려움과 슬픔 대신 용기를 갖고 살아가야 겠다고 결심을 하며 아버지의 빈자리 대신 집안의 기둥이 될 것이라고 다짐한다.

죽음에 대한 체험은 다른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그 체험이 새로운 인식을 가져다주는 가장 큰 충격임에는 틀림없다. 결국 죽음에 대한 체험이 가장 대표적인 통과의례의 한 유형인 것이다.⁶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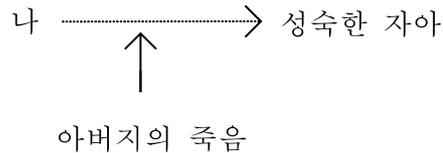
결국, 주인공 ‘나’는 다음 도식이 지시하는 바와 같이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 성숙한 자아에 도달하게 되었고 용기를 갖고 책임감 있는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67) 위의 책, p. 41.

68) 위의 책, p. 42.

69) 최현주, 앞의 논문, 「한국 현대 성장소설의 서사 시학 연구」, p. 35

각성을 이루게 된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서 이 소설은 아버지의 죽음으로 성숙한 자아에 이른다는 점에서 인식적 차원의 성장소설의 특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즉, '나'는 아버지의 죽음을 중개자로 하여 성숙한 자아에 이르게 되는 성장소설의 구조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아버지의 죽음에 절망하는 대신 한 인간으로서 독립성을 인식하는 변화된 삶의 태도를 보이며 성장하는 과정을 보이고 있다.

2) 죽음과 재생의 세계 인식

윤홍길의 「장마」는 6·25전쟁을 배경으로 가족의 죽음을 통해 동만이라는 소년이 삶에 있어서 죽음과 재생적 의미를 깨닫게 되는 성장 이야기이다.

장마는 길고 지루하며 고된 시간이다. 한편 장마가 끝나고 나면 생명이 있는 것들은 더욱 풍성해진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준비를 한다. 이처럼 장마는 고단함과 성취감이 교차하는 시간이다. 장마는 매일 죽고 다시 태어나는 우주의 질서와 생명의 오묘함을 유지하기 위한 과정이요 통과제의인 것이다.⁷⁰⁾ 따라서 「장마」는 갈등과 해소를 통해 '나'가 성장을 이루는 과정을 보여주는 성장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소설의 중요한 서사적 사건은 12개의 단락으로 요약하여, 외삼촌의 죽음 시퀀스→불화와 갈등 시퀀스→삼촌의 죽음 시퀀스→할머니의 죽음과 용서 시퀀스로 묶어 문학적 의미와 주제의 생성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외삼촌의 죽음 시퀀스>

- ① 밭에서 완두를 거둬들이고, 이튿날부터 장마가 시작된다.
- ② 악몽을 꾸 외할머니는 외삼촌의 죽음을 확신한다.

70) 박현정, 「윤홍길 성장소설 연구」, 중앙대 석사학위논문, 2008, pp. 45~46.

- ③ 장맛비가 내리는 밤 동네 구장으로부터 외삼촌의 전사통지를 받게 된다.

<불화와 갈등 시퀀스>

- ④ 외삼촌의 전사 통지서를 받은 이튿날 외할머니는 ‘빨갱이’소리를 하고 빨치산으로 간 삼촌으로 인하여 할머니와 외할머니는 심한 갈등이 생긴다.
- ⑤ 나는 어떤 사내로부터 ‘쫄콜렛’의 유혹에 넘어가 삼촌이 전날 밤 집에 다녀갔다는 사실을 말한다.
- ⑥ 아버지는 경찰에 잡혀가 일주일동안 고문을 당하게 되고 나는 금족령으로 집밖 출입을 못하게 된다.

<삼촌의 죽음 시퀀스>

- ⑦ 점장이를 만나고 온 할머니는 이무 날 아무 시에 삼촌이 집에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한다.
- ⑧ 가족들은 음식 등을 준비하며 삼촌을 기다렸고 할머니는 삼촌의 귀환을 위해 정성을 기울인다.
- ⑨ 삼촌이 돌아오기로 한 날 비가 멈추었는데 구렁이 한 마리가 마당에 나타났고 이 광경을 본 할머니는 놀도한다.
- ⑩ 외할머니는 구렁이를 삼촌처럼 대하며 할머니의 머리털을 태워 갈 곳으로 인도한다.

<할머니의 죽음과 용서 시퀀스>

- ⑪ 구렁이 사건으로 할머니와 외할머니는 화해를 하고 할머니의 임종 자리에서 지난 날 나의 잘못을 용서한다.
- ⑫ 할머니는 촛불이 스러지듯 눈을 감았고 나도 마음속으로 할머니의 모든 것을 용서한다.

6·25전쟁으로 외할머니와 외삼촌, 이모가 동만이의 집으로 피난을 오게 되고 외가댁과 친가의 가족이 한 집에 살게 된다. 서로 의지하며 평화로워 보이던 가족은 전쟁을 겪으면서 갈등이 생기며 해체되는 모습을 보인다. 가족의 갈등은 먼

저 외삼촌과 삼촌의 대립에서 시작된다. 외삼촌은 반공주의자이고 삼촌은 인민군 편에 속해 있어서 전쟁의 상황에서 대립하는 사이가 되고 두 삼촌의 대립은 결국 두 할머니의 갈등으로 번진다.

‘장마’에서 ‘나’는 외삼촌, 삼촌, 할머니로 이어지는 세 번의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 첫 번째는 육군 장교로 전사한 외삼촌의 죽음이다. 외삼촌의 죽음은 꿈의 형태로 찾아온다.

새벽잠에서 깨면서부터 줄곧 외할머니는 그놈의 꿈애기만 늘어놓고 있다. <중략> 위 아래를 통틀어 겨우 일곱 개 밖에 남지 않았는데, 난데없이 무쇠로 만든 커다란 죽집게가 입 안으로 쑥 들어오더니 기중 실하게 붙어 있던 이빨 하나를 우지끈 잣뜨려놓고 달아나는 꿈을 꾸었다는 것이다.⁷¹⁾

불길한 꿈을 꾸었다는 외할머니는 “나사 뭐 암시랑토 았다, 진즉부터 알고 있었으니께, 나사 뭐 암시랑토 았다.”⁷²⁾ 말을 반복하며 곧 받게 될 충격에서 벗어나려 한다. 장맛비가 쏟아지던 이 날 밤 불길한 예감과 함께 외삼촌의 죽음 소식을 듣게 된다. 나는 죽음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지만 동네 구장이 전해준 전사 통지서를 통해 알게 된 것이다. 외할머니는 괜찮다고 하시고 “불쌍한 것...” 하며 혼잣말을 하시지만 마루 끝에서 건지상 근방을 바라보는 할머니에게서 허전함을 느끼며 끊임없이 완두를 까는 행동에서는 아들의 죽음을 외면하려 하는 모습이 드러난다. ‘나’는 아직 죽음에 대해 깊이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이번 경험에서 삶에 비극이 내재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두 번째는 빨치산 삼촌의 죽음이다. 할머니는 삼촌이 아무 날 아무 시에 돌아온다는 용하다는 점쟁이의 말을 듣고 음식을 준비하는 등 정성을 기울이며 기다리지만 나타난 것은 커다란 구렁이 한 마리였다. 구렁이를 본 할머니는 기절을 하고 외할머니는 구렁이를 삼촌으로 생각하고 정성을 다해 가야할 길을 인도해 준다.

자네 오면 줄라고 노친께서 여러 날 들어 장만한 것일세. 먹지는 못 할망정 눈요

71) 윤희길, 『장마』, 민음사, 1982, p. 17.

72) 위의 책, p. 24.

구라도 허고 가소. 다아 자네 노친 정성 아닌가. 내가 자네를 쫓을라고 이리는 건 아니네. 그것만은 자네도 알아야 되네. 남새가 나드라도 너무 섭섭타 생각 말고, 집안 일일랑 아모 걱정 말고 머언 걸음 부데 펜안히 가소.⁷³⁾

구렁이의 실체에 대해 알지 못했던 ‘나’에게 이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다가오고 ‘저주받은 사람은 죽으면 구렁이가 된다.’는 ‘샤머니즘’에서의 죽음, 즉 죽음의 또 다른 모습을 알게 해준다.⁷⁴⁾ 이처럼 샤머니즘적인 색채를 담고 있지만 ‘구렁이’라는 실체로서 마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외삼촌의 죽음보다 구체화 된 것이다. 그리고 삼촌이 구렁이가 되어 나타났다고 믿으며 죽음과 재생의 의미를 확인하게 된다.

세 번째는 할머니의 죽음이다. 구렁이를 대밭 숲으로 보내고나서 병세가 악화 된 할머니가 고역을 치르며 일주일을 버티다가 눈을 감는다. ‘나’는 할머니가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에서 촛불이 꺼져가는 것처럼 느낀다.

할머니의 긴 일생 가운데서, 어떻게 생각하면,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그리고도 놀라운 기력으로 며칠 동안이나 식구들을 들볶아대면서 삼촌을 기다리던 그 짝막한 기간이 사실은 꺼지기 직전에 마지막 한 순간을 확 타오르는 촛불의 찬란함과 맞먹는, 할머니에겐 가장 자랑스럽고 행복에 넘치던 시간이었나보다.⁷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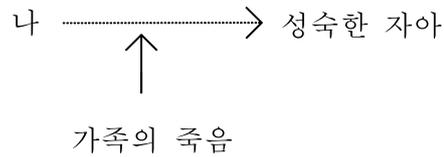
‘나’는 할머니의 삶은 타오르는 촛불과 같고 죽음은 꺼져가는 촛불의 모습이라 여기게 된다. 이처럼 우리의 삶과 죽음은 ‘촛불 타기’와 같이 재생의 형태로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이처럼 「장마」에서 그려지고 있는 죽음의 이미지는 가족의 순차적인 죽음의 경험을 통해 점차로 구체화되면서 죽음과 재생이라는 삶의 통과제의를 치르게 하는 각성의 계기로 작용한다.⁷⁶⁾ 더불어 작품 결말에는 할머니와의 화해를 통해 한층 더 성숙한 소년이 된다. 그러므로, 이 소설은 주인공이 가족을 중개자로 하여 자아의 성숙을 이루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인식적 차원의 성장소설로 분류할 수 있다.

73) 위의 책, p. 69.

74) 강혜란, 「윤홍길 성장소설 연구 - 전쟁 체험의 작품을 중심으로」, 경남대 석사학위논문, 2004, pp. 33~34.

75) 윤홍길, 앞의 책, p. 72.

76) 강민영, 앞의 논문, p. 40.



즉, ‘나’는 가족의 죽음을 통해서 성숙한 자아에 이르는 성장소설의 서사모형을 보여준다고 정리할 수 있다. ‘나’는 가족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삶의 죽음의 재생적 의미를 깨달음으로써 성숙의 단계로 나가게 된다.

지금까지의 두 편의 작중분석을 통해서 드러난 ‘죽음의 인식’ 모티프의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장소설에 나타난 죽음의 모티프는 다른 사람의 간접적인 죽음을 다룬다. 어린 주인공이 죽음에 대한 인식이 뚜렷하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삶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지며 새로운 세계에 진입하게 된다. 「어둠의 혼」에서는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하여 ‘나’는 아버지 대신 가장의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용기를 다지며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각성을 이룬다. 「장마」에서는 외삼촌, 삼촌, 할머니등 가족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삶과 죽음에 대해 통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이와 같이 죽음에 대한 체험이 가장 대표적인 통과의례의 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주인공들은 전쟁을 경험하며 인식의 변화를 겪는다. 죽음의 모티프는 전쟁소설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죽음을 전쟁고발의 수단으로 나타나지만 성장소설에서는 주인공이 전쟁으로 인한 죽음을 통해 새로운 인식을 하면서 성장을 이루어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

4. 여행을 통한 발견

주인물이 길을 떠나는 이야기는 영웅담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주인공은 외

지의 환경에서 통과제의의 ‘전이’ 과정에 해당하는 일상을 보내며 온갖 시련을 겪은 뒤 새로운 인물로 귀환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같이 성장소설에서 자아 탐색의 양상 가운데 ‘길 떠남’ 모티프는 주인공이 길을 떠나는 과정에서 시련을 겪으며 정체성 탐색이 이루어지는 내용으로 구조화된다. 즉 이런 길을 떠난다는 것은 곧 길의 철학이 그러하듯이 단순한 무목적성의 여행이 시작된다는 의미로서보다는, 탐색과 추구와 발전적 완성을 향하는 동성(動性) 단계로의 지향과 수련·탈출·방황으로서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형성 소설에 있어서는 길을 떠나면서 마주치는 사회는 결과적으로 삶의 학교이며 경험의 장인 것이다.⁷⁷⁾ 따라서 주인공이 길을 떠난다는 것은 ‘자아 형성의 길’, ‘발견의 길’을 뜻한다.

1) 자아 탐색을 위한 방향과 귀환

이문열의 「그해 겨울」은 정체성 탐색의 여정을 나타낸 성장소설이며 현재 중년 시점에서 자신의 스물 한 살 시절의 자아형성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소설 속 주인공 ‘나’는 청년시절 삶의 피로와 혼란을 겪으며 이러한 절망감에서 벗어나고자 여행을 시작한다. 여행을 하면서 새로운 삶과 새로운 사람을 경험하면서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데 이는 통행로서의 길을 통해서 자아를 발견하게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이 소설의 중요한 서사적 사건은 19개의 단락으로 요약하여, 혼란과 떠남 시퀀스→바다를 향한 여행 시퀀스→칼같이 노인과의 만남 시퀀스→새로운 출발 시퀀스로 묶어 문학적 의미와 주제의 생성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혼란과 떠남 시퀀스>

- ① 이제는 십년 전 그 겨울을 이야기할 수 있다.
- ② 나는 대학시절에 사랑하던 여자 친구와의 이별, 술을 마시며 지게 된 빚, 유급 수준의 성적으로 인해 여러 혼란을 겪으며 떠나기로 결심한다.
- ③ 나는 광부가 될 작정으로 강원도를 떠나지만 광산에서 막장이 무너져 두 사람이 묻히는 것을 보고 광부의 일을 단념한다.
- ④ 어느 산촌에 아홉 개의 온돌을 따뜻하게 덮혀놓는 ‘방우’로 취직한다.

77) 이재선, 앞의 책, p. 420.

- ⑤ 이곳에서는 매일 술자리가 벌어졌고 손님들을 상대하는 색시들을 보며 안타까움을 느낀다.
- ⑥ 나는 방우 생활을 하며 음탕한 세상을 경험하다가 떠나기로 결심한다.

<바다를 향한 여행 시퀀스>

- ⑦ 바다를 향해 떠나며 다시는 못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도 느끼지만 주막에 들러 술을 마시며 기분 좋게 여행을 한다.
- ⑧ 여행을 하는 동안 야당의 시골 당원, 시골 교회의 장로, 중등 교원 등을 만나 유쾌한 시간을 보낸다.
- ⑨ 여행 중 폐병쟁이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가 이해하지 못한 책에 대해 떠들게 되는데 그에게 웃음거리가 되어 비참한 심경을 느낀다.
- ⑩ 나는 피로운 상념 속에서 걷고 있는데 개울가에서 칼을 가는 노인을 만난다.
- ⑪ Y면에서 우연히 친척 누나를 만나게 되고 밤새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누나의 깊은 사랑의 상처에 대해 알게 된다.

<칼같이 노인과의 만남 시퀀스>

- ⑫ 바다를 향한 여행은 다시 시작되었고 창수령은 삼십 년래의 폭설을 맞았다.
- ⑬ 나는 창수령을 넘는 동안 아름답고 신비스러운 자태에 감동을 느끼며 예술적인 삶을 살 것이라는 예감을 갖는다.
- ⑭ 창수령을 넘은 첫 번째 주막에서 칼같이 노인을 만나 아는척을 하지만 그는 눈길 한 번 주지 않는다.
- ⑮ 두 번째 주막에서 유쾌한 청년을 만나 술을 마시고 새벽에 깨어 추위로 죽음의 공포를 느끼며 유서를 쓴다.
- ⑯ 추위와 배고픔으로 정신을 잃어 갈 때 쫓 칼같이 노인의 도움을 받게 되고 ‘배신자’를 찾아가기 위해 칼을 갈고 있다는 사연을 듣는다.

<새로운 출발 시퀀스>

- ⑰ 바다에서 칼같이 노인을 다시 만나게 되는데 노인은 칼을 바다에 던지며

오랜 망집을 던져버렸다고 말한다.

⑱ 나 또한 가방에 있는 유서와 약병을 바다로 던진다.

⑲ 활짝 개인 늦겨울 오후 중앙선의 상행 열차를 탄 나는 복숭아 과수원을 지나며 화려하게 필 봄을 기대한다.

‘나’는 서울에서 대학생활을 하면서 혼란을 겪게 되고 서울과 대학을 떠나 광부가 될 작정으로 강원도로 간다. 그리고 가방 안에는 ‘먹으면 몇 분 안에 죽을 수 있는 치사량의 화공 약품’을 휴대하고 있다. 하지만 광산에서 막장이 무너져 광부 두 사람이 묻히는 광경을 목격하고 겁에 질려 그곳을 빠져나온다. 다음 동해안의 어촌을 찾아가 고기잡이배를 타보려고 했지만 ‘흰 얼굴과 매듭 없는 손’으로 인하여 거절을 당한다. 그리고 어느 소읍의 여관 겸 술집에서 방우(房友)로 일하게 된다. 이곳에서 ‘나’는 두 달 동안 방우 생활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의 삶을 겪어 본다. 하지만 ‘바다가 나를 부르는 것’ 같은 소리를 듣고 바다로 향한다.

내가 택한 길은 바다 쪽이었다. 나는 바닷가 태생도 아니고, 자라서도 그것과 특별한 인연을 맺은 적도 없었다. 더구나 그때는 이미 배를 타겠다고 하는 따위 현실적인 이유도 없는데다, 길은 또 내 집과는 반대 방향이었다. <중략> 어쨌든 나는 바다를 향해 떠났다. 바다는 그곳에서 직선거리로 백 리 남짓하였지만, 험준한 태백산맥을 우회하기 위해서는 이백리에 가까웠다. 편평족인 내게는 사흘 길이 뻘뻘하였는데도 나는 고집스레 걸어서 갔다.⁷⁸⁾

‘나’는 바다로 향하며 ‘한 번도 집권해 본 적이 없는 야당의 시골 당원’도 만나고 시골 건달, 시골 교회의 장로, 중등교원, 도시의 여공, 폐병쟁이 지식인을 만나 길동무가 된다. ‘나’는 다양한 사람을 만나 다양한 삶을 경험하게 되지만 가장 큰 각성을 준 사람은 Y면에서 만난 친척 누나와 원수를 찾아가기 위해 칼을 가는 칼잡이 노인이다.

Y면에서 만난 친척 누나로부터 방황하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된다. 사랑

78) 이문열, 『그해 겨울』, 『이 강에서』, 청아출판사, 1996, p. 249.

에 실패하고 절망적인 삶을 살던 누나는 이제 다시 일어나려고 한다. 그리고 누나는 ‘나’에게 “절망이야 말로 가장 순수하고 치열한 정열이다.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것은 진실하게 절망하지 않기 때문이다.”⁷⁹⁾라는 말을 남긴다.

‘나’는 누나와 헤어지고 창수령을 넘으며 아득한 눈세계에 홀로 남아 육체의 고통을 느끼게 되지만 심장이 시키는 대로 달린다. 그리고 해발 칠백 미터의 창수령을 넘으며 벽찬 감동을 느낀다.

아아, 나는 아름다운 실체를 보았다. 창수령을 넘는 동안의 세 시간을 나는 아마도 영원히 잊지 못하리라. 세계의 어떤 지방, 어느 봉우리에서도 나는 지금의 감동을 다시 느끼지는 못하리라. 우리가 상정할 수 있는 완성된 아름다움이 있다면 그것을 나는 바로 거기서 보았다. 오, 그 아름다워서 위대하고 아름다워서 숭고하고 아름다워서 신성하던 그 모든 것들...⁸⁰⁾

누나의 말처럼 진실로 절망을 극복하면 아름다운 세상의 빛을 보게 되고 육체의 고통은 영혼의 성장을 이루게 된다.

다음에 만난 칼같이 사내 또한 ‘나’와 흡사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사내는 스물 안팎의 젊은 시절에 자유와 평등을 갈망하며 사회에 반항을 하게 된다. 그리고 얼마가지 않아 배신자로 인하여 갈망하던 꿈은 깨어지고 교도소에서 19년을 살다 얼마 전 출소를 한 것이다. 그는 배신자를 향한 ‘복수의 칼’을 갈고 있다. 이와 같이 ‘나’는 미래를 찾아가는 중이고 사내는 잃어버린 꿈과 과거를 보상받으러 길을 걷고 있다. 사내와 ‘나’는 무엇인가를 갈망하고 방황하는 시절이 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도 무언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에 같은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칼같이 사내와 만남을 갖고 난 후 마침내 최종 행선지인 대진의 바다에 이르게 된다. 바닷물 속으로 들어가 바다의 오의(奧義)가 ‘나’의 방황에 혼연한 중 말을 가져올 어떤 목소리와 접할 것을 기대해 보지만 기대와 달리 회색 갈매기 한 마리가 세찬 파도에 잠겨 다시는 떠오르지 않는 현상을 목격 한다. 이때 갈매기처럼 파도에 묻혀 버릴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지만 온 힘을 다해 사장의

79) 위의 책, p. 263.

80) 위의 책, p. 267.

로 몸을 끌어낸다. 그리고 ‘나’라는 존재는 거대한 허무와 절망의 과도에 떠 있는 존재임을 확인하게 되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닫는다.

그러나 갈매기는 날아야 하고 삶은 유지돼야 한다. 갈매기가 날기를 포기했을 때 그것은 이미 갈매기가 아니고, 존재가 그 지속을 포기했을 때 그것은 이미 존재가 아니다. 받은 잔은 마땅히 참고 비워야 한다. 절망은 존재의 끝이 아니라 그 진정한 출발이다...⁸¹⁾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있을 때에 “내 오랜 망집(妄執)을 버렸다.”⁸²⁾고 말하며 칼을 바닷 속에 던지는 칼같이 사내를 다시 만나게 된다. 그리고 ‘나’역시 6개월 동안 가지고 다니던 화공 약품과 유서를 바다에 던져 버린다. ‘나’는 오랜 집착을 벗어던지고 포기와 자유를 선택한 칼같이 사내에게서 자신의 방향도 끝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절망은 존재의 끝이 아니라 그 진정한 출발이다’⁸³⁾는 인식에 이르게 된다.

이튿날 나는 중앙선의 상행 열차를 타고 있었다. 활짝 개인 늦겨울의 오후였다. 열차는 어느 복숭아 과수원을 지나고 있었는데, 그 때 그 줄기 끝마다 바알장게 맺혀 있던 것은 분명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게 필 봄이었다.⁸⁴⁾

소설 끝에는 겨울의 춥고 어두운 이미지에서 따뜻하고 화사한 봄의 이미지를 느낄 수 있다. 이것은 겨울과 같이 어두운 ‘나’의 의식이 활짝 개인 ‘봄’과 같은 의식으로 변화하였음을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게 필 봄’처럼 ‘나’에게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소설은 주인공이 친척누나와 사내와의 만남을 통해 정체성의 탐색에 이른다는 점에서 실천적 차원의 성장소설로서의 특성을 보여주게 된다.

81) 위의 책, p. 285.

82) 위의 책, p. 287.

83) 위의 책, p. 263.

84) 위의 책, p. 289.



친척 누나와 칼같이 사내와의 만남

즉, ‘나’는 친척 누나와 칼같이 사내와의 만남을 중개자로하여 정체성 탐색에 나서게 되는 서사모형을 보여준다. 그 결과 ‘나’는 일상의 삶에 환멸을 느끼며 동해안으로 떠난 자아 탐색의 여로에서 절망과 자유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새로운 삶을 지향하는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2) 삶의 진정한 의미 찾기

김혜정의 『하이킹 걸즈』는 자아 정체성의 혼란을 겪던 시기의 주인공인 ‘나’가 실크로드 도보 여행을 하면서 참자아를 깨달으며 성장을 이루는 나가는 이야기이다. ‘나’는 실크로드 도보여행에 참여하며 집을 떠나 낯선 곳으로 향하는데 즐거운마음으로 떠나는 일반적인 여행과는 달리 강제성을 띤 ‘길 떠남’이다. ‘나’에게 있어서 여행이란 애초 탈출의 통로로 이용되다가 점차 목표지향적인 길로 변화한다.

이 소설의 중요한 서사적 사건은 19개의 단락으로 요약하여, 실크로드 도보여행 시퀀스→힘든 여정 시퀀스→갈등과 반성 시퀀스→이탈 시퀀스→성취와 성장 시퀀스로 묶어 문학적 의미와 주제의 생성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실크로드 도보여행 시퀀스>

- ① 나는 미혼모인 엄마에 대해 안 좋게 이야기하는 같은 반 친구를 때려 소년원에 갈 처지에 놓인다.
- ② 소년원에 들어가는 대신 실크로드 도보 여행을 할 것을 제안 받았고 인솔자 미주 언니와 한 살 아래인 보라와 여행을 시작한다.
- ③ ‘실크로드 도보 여행’이 ‘비단길 여행’이라고 생각한 나는 아스팔트 포장도 제대로 되지 않은 ‘시골길 여행’임을 알고 크게 실망한다.

<힘든 여정 시퀀스>

- ④ 나는 여행을 하여야 하는 이유를 모른 채 큰 배낭을 메고 한 여름에 걷고 또 걷는다.
- ⑤ 보라는 너무 걸어서 엄지발톱이 빠질 상황인데 미주언니는 시간이 없다고 걷기를 강행하여 나는 화를 내었고 미주언니와 말다툼을 한다.
- ⑥ 도보여행 쉬는 날 시장 구경을 하는데 단독 행동을 하다 길을 잃어버려 방황하다 간신히 미주언니와 보라를 만나 숙소로 돌아온다.
- ⑦ 여행 중 한족이 운영하는 식당에 갔다가 돈이 든 미주언니의 보조가방을 분실하는데 뜻밖에 주방 안 옷걸이에 걸려 있어 주인아저씨 몰래 찾아온다.

<갈등과 반성 시퀀스>

- ⑧ 여행 중 만난 중국 여학생들이 이유 없이 보라를 밀치는 등 시비를 걸어 나도 모르게 주먹으로 여학생을 때린다.
- ⑨ 일은 커지게 되었고 미주언니는 때린 이유는 물어보지 않고 지나치게 화를 내어 나는 도보 여행을 포기하겠다고 한다.
- ⑩ 미주언니로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 부모님의 이혼으로 방황했던 시절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나는 나의 삶을 돌아보며 후회와 반성을 한다.

<이탈 시퀀스>

- ⑪ 도보여행이 2주 남았을 때 보라는 한국에 돌아가기 싫다며 이탈 하였고 나는 보라가 걱정이 되어 같이 이탈한다.
- ⑫ 길을 걷던 중 깡패를 만나게 되는데 조선족의 도움을 받아 위험에서 벗어난다.
- ⑬ 보라는 엄마가 만화를 그리지 못하게 한다는 이야기, 그리고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해 물건을 훔치는 버릇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하며 한국에 돌아가고 싶지 않은 이유를 말한다.
- ⑭ 사막길에서 친절한 위그르인들을 만나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하룻밤 묵는다.
- ⑮ 나를 사랑해서 낳은 거라는 보라의 말을 들으며 나와 엄마는 서로에게 살

아가는 힘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성취와 성장 시퀀스>

- ⑯ 사막을 벗어나 고급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는데 지갑을 분실하여 음식 값을 지불하지 못하고 경찰서로 연행된다.
- ⑰ 경찰서에서 미주언니를 다시 만나게 되고 이탈로 인해 도보 여행이 중단 되었다고 통보받는다.
- ⑱ 나와 보라는 소년원에 들어가더라도 끝까지 견게 해달라고 애원한다.
- ⑲ 종착지인 둔황까지 도보여행을 마치고 나는 처음으로 무언가를 끝까지 해 냈다는 성취감을 맛보게 된다.

‘개은성’ 혹은 ‘미친 주먹’으로 불리는 ‘나’는 같은 반 친구를 때려 소년원에 갈 처지에 놓이게 된다. ‘나’는 재판이 끝나고 소년원에 들어갈 날을 기다리는데 소년원 대신 실크로드 도보 여행을 할 것을 제안 받는다. 청소년 보호 센터 운영자와 검찰이 연대하여 청소년 재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중이다. 비행 청소년들이 처벌대신 도보 여행을 하여 재범 확률이 현저히 줄어든 성공적인 사례를 보여준 프랑스의 청소년 재활 프로그램을 도입해 보겠다는 취지이다. ‘나’는 흔쾌히 제안을 받아들였고 인솔자 미주 언니와 한 살 아래인 보라와 일행이 되어 도보 여행을 시작하게 된다. 그러나 실크로드가 ‘비단 길’이라고 믿었던 ‘나’는 제대로 포장도 되어있지 않는 ‘시골 길’과 같은 곳임을 알고 큰 실망을 하며 여행 시작부터 불만을 터트린다. 여행 일정은 총 70일로 6월 22일부터 8월 30일까지이며 한 여름에 우루무치에서 둔황까지 1,200킬로미터를 걸어야 하는 힘든 일정이다. 이렇게 70일 동안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도 없고 세상과 단절한 채 지내야 한다. 하지만 이 여행에서 실패하면 소년원으로 가야하기 때문에 이를 악물고 도보 여행을 해내야 한다.

다 참을 수 있었다. 냄새나고 더러운 이불도, 사람 무서운 줄 모르고 방바닥을 마구 지나다니는 바퀴도, 따뜻한 물이라고는 나올줄 모르는 목욕탕도, 코를 막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재래식 화장실도, 행구다 만 국수도, 찜질방 같은 더위도, 한국에

있는 친구들과 전화 한 통 못하는 것도, 인터넷 게임을 못 하는 것도 다 참을 수 있었다. 하지만 가도 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 길만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내가 왜 이 거지같은 길을 걸어야만 하는지 억울할 뿐이다.⁸⁵⁾

여행의 길은 그야말로 ‘고난의 길’이다. 햇볕은 맹렬한 기세로 내리쬐고, 배낭은 무겁기만 하다. 제대로 사용할 화장실도 없어 ‘자연 화장실’을 이용해야 했다. 너무 걸어서 발이 부르토고 급기야 보라의 엄지발톱은 빠질 듯이 흔들렸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미주언니는 쉴 시간이 없다고 자꾸 재촉을 하여 ‘나’는 참지 못하고 심하게 화를 내고 말다툼이 일어난다. 도보여행을 하는 동안 생각지 못한 일들도 일어난다. 일주일에 한 번 쉬는 날 시장구경을 갔다가 길을 잃어버려 겨우 미주언니와 보라를 만나기도 하고 식당에서 지갑과 가방을 분실했다가 찾기도 한다. 그리고 어느 날 도보여행 중 만난 일본 여학생들이 이유 없이 보라에게 시비를 걸고 괴롭히자 ‘나’는 그만 이성을 잃고 주먹이 앞서게 된다. 일은 커질대로 커지고 미주 언니는 때린 이유는 물어보지도 않고 화만 내어서 ‘나’는 도보여행을 포기하겠다고 한다. 이런 ‘나’에게 미주언니는 ‘나’의 잘못된 모습에 대해 꼬집어 이야기를 한다.

“아니, 너는 아직 한참 멀었어. 지금 너는 사고 쳐 놓고, 그걸 못견디겠으니까 그만 두겠다는거야. 넌 한국에서도 그랬어. 네가 사고를 치면 할머니나 엄마가 수습을 했어, 안 그래? 넌 다른 사람이 수습한다는 걸 아니까 그걸 믿고 문제를 일으켰던 거야. 하지만 세상은 네 생각처럼 만만한 곳이 아니야. 이것조차 하지 못하면서 무슨 어른이 되겠다고 그래?”⁸⁶⁾

미주 언니의 말은 사실이었고 과거의 삶을 돌아보게 하였다. 나의 일에 끝까지 책임지지 않았던 일들이 떠오르며 ‘고장난 자동차’와 같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언제쯤 ‘어른’이라는 자격증을 따서 나의 일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지 물음을 던져본다. 이제까지 ‘나’가 저지른 일은 할머니와 엄마가 해결하러 다녔다는 것에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고 이런 일들에 대해 후회하게 된다.

85) 김혜정, 『하이킹 걸즈』, 비룡소, 2008, p. 32.

86) 위의 책, pp. 127~128.

한편 미주언니는 ‘나’와 같은 모습으로 방황했던 과거의 일을 털어놓는다. 부모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혼을 했고 이 일로 학교에도 나가지 않고 방황의 시절을 보내게 된다. 곧 이러한 삶이 옳지 않다고 후회를 하다가 언니를 따라 실크로드 도보여행을 하며 새롭게 인생을 시작한 것이다. 미주 언니의 대화를 통해서 ‘나’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성장을 이루기 시작한다. 이러한 과정은 미주언니와 ‘나’ 사이에 서로의 성장을 돕는 결과를 낳는다.

보도 여행이 2주 남았을 때에 보라는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두려워 이탈을 결심한다. 그리고 보라가 걱정된 ‘나’는 같이 이탈을 하게 되고 길을 떠난다. 그리고 둘은 정치 없이 길을 가다가 깡패를 만나게 되는데 조선족의 도움으로 위험한 상황을 벗어난다. 그리고 사막에서 위그르인들을 만나 하룻밤 신세를 지게 되는데 화목한 위그르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자신의 가정생활을 돌아보며 반성을 하게 된다.

‘나’는 보라와 속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자신의 삶과 전혀 다르게 살아온 보라를 통해 엄마가 ‘나’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사랑했기 때문에 미혼모로 ‘나’를 낳았다는 것을 깨닫는다. 엄마는 재혼을 하려고 했지만 나의 존재로 인해 아저씨 집안에서 심하게 반대를 하여서 포기하여야 했다. 그리고 ‘나’가 반 친구들을 때려 사고를 쳤을 때도 피해자 부모님 앞에서 무릎을 꿇었던 엄마였다. 평소 ‘나’에게 화도 잘 내고 애정표현도 잘 하지 않는 엄마이지만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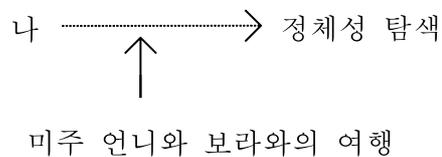
낙타 봉 속에 담긴 비밀 말이다. 흑으로 보이는 낙타의 봉에는 사실 낙타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들어 있었다. 나는 엄마에게 있어 흑이 아니라 봉이다. 그리고 엄마도 나에게 있어 마찬가지다.⁸⁷⁾

낙타봉 속에 있는 영양분으로 사막에서 낙타가 오래 견딜 수 있는 것처럼 ‘나’와 엄마는 서로에게 낙타봉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다. 봉의 힘으로 사막을 건너는 낙타처럼 ‘나’와 엄마는 서로에게 살아가는 힘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87) 위의 책, p. 276.

보라와 ‘나’는 음식점에 갔다가 음식 값을 지불하지 못해 경찰서로 연행되어 다시 미주언니와 만나게 되지만 도보 여행은 취소된다. 하지만 보라와 ‘나’는 소년원에 가더라도 도보 여행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아빠를 원했지만 아빠는 생기지 않았고 엄마와 친해지기를 바랐지만 엄마는 항상 멀리 있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삶을 살았지만 ‘도보 여행 완주’의 간절함이 생긴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둔황까지 도보 여행을 마치게 되었고 처음으로 무언가를 끝까지 해냈다는 성취감을 맛보게 된다.

따라서 이 소설은 주인공이 미주언니와 보라와의 여행을 통해서 정체성을 탐색하는 성장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실천적 차원의 성장소설로 분류할 수 있다.



미혼모인 엄마와의 갈등으로 자아 정체감에 위기를 갖게 된 ‘나’는 여행을 하면서 미주언니를 통해 ‘나’의 모습을 제대로 보게 되고 보라의 대화를 통해 엄마의 존재감을 느끼기 시작한다. 그리고 엄마가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고 앞으로의 인생의 목표에 대해 생각하며 자아 각성을 이룬다.

지금까지 두 편의 소설 분석을 통해 드러난 ‘여행의 발견’ 모티프의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길을 떠나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다른 세계의 삶을 이해하고 나아가 반성과 함께 자아성장을 이룬다. 『그해 겨울』에서 ‘나’는 친척 누나를 통해 방황하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고 삶의 정열과 용기를 갖고 살아가는 법을 배운다. 그리고 칼같이 사내로 부터는 집착을 벗어던지면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배운다. 『하이킹 걸즈』에서 ‘나’는 미주언니의 모습에서 ‘나’의 모습을 보게 되고 자신을 돌아본다. 그리고 자신의 삶과 전혀 다르게 살아온 보라를 보면서 엄마가 자신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빠 없이 자신을 낳았다는 것을 깨닫는다. 또한 가진 것 없이 화목하게 살아가는 위그르족을 보면서 늘 불만 투성이었던 자신의 삶을 반성하게 된다.

둘째, 길은 두 가지로 나타난다. 공간 이동인 ‘통행로서의 길’과 ‘자아발견의 길’이다. 공간적으로 이동을 하는 외연적인 길임인 동시에 그 과정에서 자아를 발견하게 되며 주인공은 성숙을 이룬다. 「그해 겨울」에서는 동해안으로 떠나며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새로운 삶을 지향하게 된다. 『하이킹 걸즈』에서는 실크로드라는 여행의 공간적 이동을 경험하게 되는데 늘 실패감을 맛보며 기대라는 것 없이 살았던 과거를 돌이키고 싶은 욕망이 생기고 자아 발견의 길을 찾는다.

셋째, ‘길 떠남’ 모티프는 탈출 모티프의 변형이다. 「그해 겨울」은 대학생활로부터의 탈출이며 『하이킹 걸즈』는 소년원에 가지 않기 위해 청소년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시작된 여행이다.

넷째, ‘길 떠남’ 모티프를 지닌 성장소설의 서사구조는 출발에서 귀환으로 진행된다. 성장소설은 결핍에서 충족으로, 출발에서 귀환으로, 분리에서 결합으로 진행되는 서로 이항대립적인 구조적 양상을 보인다. ‘길 떠남’ 모티프에서도 성장주체는 분리에 해당하는 출발에서 통합에 이르는 귀환의 과정을 거치게 되며 귀환을 하는 성장주체는 분리의 고통을 체험하고 스스로 부족함을 극복하며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한다. 이와 같이 소설 속 주인공들은 통과 의례를 바탕으로 입사담의 구조, 분리→전이→결합의 세 단계의 과정을 겪는다. 「그해 겨울」에서 ‘나’는 일상에서 이탈을 하는 분리의 과정과 일상을 떠나 강원도 산골의 광부, 방우 생활, 바다를 향해 눈길을 걸으며 고통과 시련을 겪는 전이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리고 고통과 시련을 극복하고 절망이 존재의 끝이 아니라 진정한 출발이라는 인식에 도달하게 되는 과정은 결합의 과정이다.

『하이킹 걸즈』에서 ‘나’는 소년원에 가지 않기 위해 낯선 곳을 향하는 분리의 과정과 한여름 포장되지 않은 길을 70일 동안 걸으며 청소년 문화와 철저히 차단된 세상에서 고된 나날을 보내는 전이과정을 거친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도보여행을 마치며 끝까지 해냈다는 성취감을 느끼며 자아정체성을 발견하는 결합의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5. 순수성의 상실

성장소설에서 주인공은 새로운 세계의 체험을 통해 인식의 변화를 가져온다. 주인공은 처음으로 악을 경험하며 충격을 받게 되는데 이는 세계에 대해 무지하고 순진하던 주인공이 세계를 인식해 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악을 인식하고 체험함으로써 주인공은 인간 존재의 원천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리고 성장소설에서 주인공은 악을 체험함으로써 세계와 자아에 대한 성숙한 인식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⁸⁸⁾ 선,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성인의 세계에 진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선, 악의 구별은 개인이 세계 속에서 정체성을 추구해 나가는 성숙의 통과제의가 된다.

1) 악의 체험을 통한 자아 발견

이문열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은 국민학교를 배경으로 하여 한 교실 집단 속의 권력 관계와 이러한 집단 속의 질서에 편입되어 가는 과정을 그림으로써 우리 사회의 ‘악’의 실태를 고발하고 있다. 소설 속에서 12세 소년 주인공 ‘나’는 전학 간 학급에서 세사지 악을 발견한다. 첫 번째 악은 엄석대로부터의 독재적인 악이고 두 번째는 어른들의 무관심과 무능의 악이며 세 번째는 엄석대를 둘러싼 급우들의 비열한 악이다. ‘나’는 한 교실 집단 속의 권력 관계와 악의 질서에 편입되어지는데 이 주인공이 악에 대한 대응의 자세는 저항의 단계→굴복의 단계→자기발견의 단계⁸⁹⁾로 나누어져 있다.

이 소설의 중요한 서사적 사건은 22개의 단락으로 요약하여, 새로운 환경 시퀀스→저항과 소외 시퀀스→굴복과 순응 시퀀스→독재 왕국의 붕괴 시퀀스→악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성숙 시퀀스로 묶어 문학적 의미와 주제의 생성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88) 허선화, 앞의 논문, p. 38.

89) 심일주, 앞의 논문, p. 13.

<새로운 환경 시퀀스>

- ① 30년 전, 자유당 정권이 기승을 부리던 해에 아버지의 전근으로 시골의 국민학교로 전학을 가게 된다.
- ② 시골의 국민학교는 전에 다니던 서울의 명문 국민학교와 여러 가지 비교가 되어서 적잖은 실망을 하게 된다.

<저항과 소외 시퀀스>

- ③ 같은 반 엄석대라는 아이는 반 급장이었으며 담임선생님의 신임과 반 아이들의 절대적 복종을 받고 있다.
- ④ 어느 날은 급장에게 물 갖다 주는 당번이라고 하자 나는 거절을 하였고 이 일로 반에서 소외를 당한다.
- ⑤ 나는 석대를 이기기 위해 기회를 보며 노력을 하였으나 쉽지 않았고 성적에서도 석대에게 1등을 내준다.
- ⑥ 병조의 아버지의 라이터를 석대가 빼앗아 나는 이 사실을 담임선생님께 알리지만 석대가 미리 알고 선생님이 오시기 전에 병조에게 돌려준다.
- ⑦ 나의 의견으로 담임선생님께서서는 석대가 반 아이들을 괴롭히는지 물어보았고 이런 일이 있으면 종이에 써서 내라고 했지만 반 아이들은 묵인하고 백지를 낸다.
- ⑧ 이 일 이후 나는 담임선생님께 꾸중을 듣게 되고 반에서는 이전보다 심한 왕따를 당하며 성적도 계속 떨어진다.

<굴복과 순응 시퀀스>

- ⑨ 석대를 향해 저항하던 나는 점차 지쳐갔고 불복할 기회를 기다린다.
- ⑩ 학교에 장학관의 방문이 예정되어 있어서 창문 청소를 하게 되고 검사는 석대가 한다.
- ⑪ 나는 석대에게 잘 보이기 위해 공을 들여 창문을 닦지만 몇 번이고 불합격이 되어서 혼자 교실에 남는다.
- ⑫ 나는 서글픔에 눈물을 흘렸고 나의 모습에 석대는 유리창 청소 합격이라고 하였으며 이것으로 나는 석대에게 굴종되고 그의 질서 안에 편입된다.

- ⑬ 나는 석대가 구축한 왕국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이 모든 것은 석대의 크나큰 은총으로 느낀다.

<독재 왕국의 붕괴 시퀀스>

- ⑭ 6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중학 입시 준비로 담임선생님이 바뀌게 된다.
- ⑮ 새로운 급장 선거에서 예전과 다름없이 석대가 반장이 되자 담임선생님은 우리들에게 못한 것들이라며 화를 낸다.
- ⑯ 첫 일제고사 성적이 발표되던 날 선생님은 석대가 친구들과 시험지를 바꿔 치기를 하여 전교 1등을 유지한 사실을 알고 크게 분노하며 엄벌한다.
- ⑰ 담임선생님은 그 동안 석대의 비밀에 대해 1번부터 차례대로 말하라고 하였고 반 아이들은 석대의 나쁜 짓을 열성적으로 이야기한다.
- ⑱ 학급 임원진을 새로 뽑게 되었고 급장 선거 개표가 거의 끝나갈 쯤 석대의 표가 한 표도 나오지 않자 석대는 굴욕을 느끼며 밖으로 뛰쳐나간다.
- ⑲ 석대는 학교에 오지 않고 학교 밖에서 잔혹하게 아이들을 보복한다.
- ⑳ 아이들은 용기 내어 여럿이서 석대와 맞붙었고 그 이후 나타나지 않는다.

<악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성숙 시퀀스>

- ㉑ 현재 학원 강사인 나는 가족들과의 여행길에서 형사에게 붙잡혀 실랑이를 벌이는 엄석대를 보게 된다.
- ㉒ 그날 밤, 나는 늦도록 술잔을 비우며 세계와 인생에 대한 안도에서였는지 새로운 비관에서였는지 눈물을 떨군다.

이 소설에서 주인공인 ‘나’는 전학 간 학급에서 절대 권력을 지니고 있는 엄석대로부터 악을 발견한다. 엄석대는 담임선생님과 급우들로부터 절대적인 신뢰와 지지를 받고 있었다. 엄석대가 지시하면 복종이 이루어졌고 저항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점심시간에는 아이들이 석대에게 고구마와 달걀 등 먹을 것을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컵에 물을 떠다 공손히 놓으며 담임선생님께 하듯 하였다. ‘나’에게 학급의 광경은 큰 충격으로 다가왔고 이러한 새로운 환경과 질서에 그대로 편입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며 불합리한 질서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다짐한다.

문득 등뒤에서 귀에 익은 엄석대의 목소리가 나를 위압하듯 들려 왔다.

“어이, 한병태. 잔소리 말고 물 한 컵 떠 와.”

“싫어, 난 못해!”

나는 그 또한 매몰차게 거절했다. 이미 약이 오를 대로 오른 내 눈에는 엄석대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러자 엄석대는 거칠게 도시락 뚜껑을 닫고는 험한 얼굴로 내게 다가왔다.⁹⁰⁾

‘나’는 엄석대의 독재적인 행동에 반항적인 모습을 보였고 이 일을 계기로 학급에서 소외를 받으며 외로운 학교생활을 하게 된다. ‘나’는 석대를 이겨보려고 여러 기회를 엿보았으나 결과는 매번 실패였다. 성적으로나마 이겨보려고 했으나 1등 자리도 석대에게 내준다. 하지만 ‘나’는 엄석대의 권력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며 이에 맞설 수 있는 기회를 엿본다.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린 때가 왔다. 같은 반 친구가 아버지의 라이타를 가져왔는데 엄석대가 이것을 빼앗은 것이다. 라이타를 빼앗긴 친구는 당황 하였고 ‘나’는 이 사실을 담임선생님에게 고발한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 ‘나’는 오히려 거짓말을 했다는 오해를 받으며 담임선생님에게 책망을 받게 되고 학급에서는 더 큰 따돌림을 받는다.

“남의 잘못을 뒷사람에게 일러바치는 것은 좋지 못한 것이다. 거기다가 너는 거짓말까지 했어.”

담임선생은 화를 삭이느라 거꾸 담배를 빨아들이고 있다가 내가 들어가자 그렇게 나무랐다. 그리고 내가 하도 기가 막혀 얼른 대꾸하지 못하는 걸 스스로의 잘못을 승인 하는 것으로 알았는지 한마디 덧붙였다.

“네가 서울에서 오고 공부도 잘한다기에 기대했는데 솔직히 실망했다. 나는 이 반(班) 담임을 맡아 왔지만 아직 이런 일은 없었어. 순진한 아이들이 너를 닮을까 겁난다.”⁹¹⁾

‘나’는 담임선생님의 방관적인 자세와 무능함을 악으로 인식하고 어른 세계에 대해 분노를 느낀다. 이러한 악의 발견은 아버지에게서도 발견한다. “거참 대단한 아이로구나, 이름이 엄석대랬지? 벌써 그만하면 나중에 인물이 꽤도 큰 인물

90) 이문열, 앞의 책,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p. 160.

91) 위의 책, p. 175.

이 되겠다.”⁹²⁾는 아버지의 반응에 나는 다시 실망한다.

샘솟는 내 눈물로 이내 뿌옇게 흐려진 그 얼굴 쪽에서 다시 그런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짐작컨대 그는 내 눈물의 본질을 꿰뚫어보았음에 틀림이 없다. 거기서 이제 는 결코 뒤집힐 리 없는 자신의 승리를 확인하고 나를 그 외롭고 고단한 싸움에서 풀어준 것이었다. 그러나 내게는 그 너그러움이 오직 감격스러울 뿐이었다.⁹³⁾

끝내 외롭게 암석대의 폭력 앞에 저항하던 ‘나’는 눈물로 무릎을 꿇게 되고 암석대가 만들어놓은 악의 울타리 안에 거하게 된다. 따라서 ‘나’의 순수성은 불순하고 비합리적 폭력에 의해 거세되고 ‘나’또한 그러한 새디즘과 메저키즘에 의해 주도되는 폭력의 그물망에 편입된다.⁹⁴⁾

‘나’는 그의 질서에 순응하면서 내 자리도 되찾게 되었다. 성적도 차츰 제자리로 돌아왔고 더 이상 문제아, 왕따도 아니다. 이러한 상황이 석대의 크나큰 은총으로 느껴지기까지 한다. 그의 질서에 편입된 ‘나’는 이제 몸담고 있는 이 질서가 허물어지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미 ‘나’는 이 질서에 일부가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새로운 담임선생님의 혁명을 환영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시험지 바꿔치기’로 석대가 전교 1등을 유지해 온 것을 새로운 담임선생님이 알게 되었고 이 일을 계기로 석대의 비밀이 날날이 밝혀지며 그의 왕국은 무너지게 된다. 이렇게 무너진 석대의 권위에 대해 싸늘하게 돌아서며 그를 먼저 짓밟은 것은 학급 아이들이었다.

그런데 한 가지 묘한 것은 그런 것을 고발하는 아이들의 태도였다. 처음에는 마치 못해 선생님만 쳐다보고 머뭇머뭇 밝히다가 한 번호 한 번호 뒤로 물릴수록 차츰 목소리가 커지면서 눈을 번쩍이며 쏘아보는 석대를 향해 말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입마’ ‘새끼’ 같은 전에는 감히 입 끝에 올려보지도 못한 엄청난 욕들을 섞어 선생님께 고발한다기보다는 석대에게 바로 퍼대는 것이었다.

92) 위의 책, p. 157.

93) 위의 책, p. 195.

94) 최현주, 앞의 논문, 「한국 현대 성장소설의 서사 시학 연구」, p. 52.

이윽고 39번 내 차례가 왔다.

“저는 잘 모릅니다.” <중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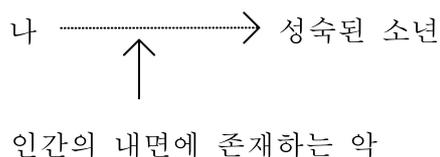
“너 정말 몰라?”

“저새끼, 순 석대 꼬붕이 ...”⁹⁵⁾

석대의 악으로 기죽어 살던 학급 아이들이 이제 힘이 없어진 석대를 향해 집단적 악을 행사하게 되는데 이러한 학급 아이들의 행동에 악을 발견하며 ‘나’는 경악한다. 이로써 나는 학급 아이들과 동조하지 않고 반항하게 된다. 이것은 ‘나’가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 폭력성을 확인하고 인간의 이중성에 대해 통찰하게 된 계기가 된다.⁹⁶⁾ 또한 비열한 변절자로 변하여 엄석대를 고발하는 학급 아이들은 보면서 ‘나’를 둘러싼 세계의 모든 것에 대해 절망한다.

그러나 부조리한 세계를 이끌고 나가는 영웅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깨닫게 됨으로써 순진의 눈에서 성숙한 눈으로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볼 때, 이 소설은 주인공이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 악을 통해서 성숙한 소년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점에서 인식적 차원의 성장소설로 설명할 수 있다.



즉, ‘나’는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 악을 중개자로 하여 성숙된 소년으로 성장하는 서사모형을 보여준다고 설명할 수 있다. 이를테면, 주인공은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 악을 경험하는 과정을 통해서 비판적으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각성된 자아를 성취하게 된다.

2) 순수성의 상실과 부조리 체험

김승옥의 「乾」은 전쟁을 배경으로 비윤리적인 세계 속에서 악을 체험하는 주

95) 이문열, 앞의 책,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p. 216.

96) 최현주, 앞의 논문, 「한국 현대 성장소설의 서사 시학 연구」, pp. 53~54.

인물의 성장을 다루고 있다. 이 소설은 부조리한 세계의 현실이 순진한 소년의 목소리로 고발되고 있다. 아버지의 돈에 대한 욕망, 형의 동물적인 본능으로 인하여 순진한 소년인 ‘나’가 기대하는 삶이 어떻게 파괴되어 가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나’는 하루라는 짧은 시간에 음모·타락 등의 세계를 체험하며 이러한 세계에 흡수된다.

이 소설의 중요한 서사적 사건은 15개의 단락으로 요약하여, 전쟁으로 인한 파괴 시퀀스→비정함의 체험과 충격 시퀀스→부조리 세계 가담 시퀀스로 묶어 문학적 의미와 주제의 생성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전쟁으로 인한 파괴 시퀀스>

- ① 전날 저녁, 빨치산들의 습격으로 시는 엉망진창이 되었고 방위대 본부는 아직도 불길이 타오르고 있다.
- ② 굉장한 부호가 살던 방위대 본부는 6·25 전쟁 이전에는 아무도 살지 않아 아이들의 재미있는 지하 놀이터가 되어주었다.
- ③ 1학년 때 지하실에 미영이와 단 둘이 있게 된 나는 미영이를 꼭 껴안아버렸고 그 후, 미영이는 전쟁 피난을 가버리고 돌아오지 않았다.
- ④ 형이 계획한 친구들과의 무전여행은 빨치산의 습격으로 취소된다.

<비정함의 체험과 충격 시퀀스>

- ⑤ 나는 학교를 가는데 여고에 다니는 윤희 누나를 만나게 되고 벽돌 공장에 빨치산의 시체가 있다는 말을 듣는다.
- ⑥ 학교에 도착한 나는 친구들에게 빨치산의 시체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친구들과 시체를 보러간다.
- ⑦ 나는 시체를 보고 눈에서 눈물이 나도록 쓰리고 어지러움을 느낀다.
- ⑧ 점심을 먹고 있는데 반장이 찾아와 아버지에게 시체 치우는 것을 부탁하자 아버지는 승낙을 한다.
- ⑨ 아버지는 도구를 챙기며 돈 벌러 가자며 형과 형 친구들을 데리고 시체를 치우러간다.
- ⑩ 한 노파가 시체의 누런 얼굴을 하염없이 쓸어주며 관이 내려질 때에는 떨

리는 목소리로 이름을 몇 번 부른다.

⑪ 나는 시체도, 시체를 묻고 있는 사람들도 미워진다.

<부조리 세계 가담 시퀀스>

⑫ 일을 마치고 집에 오는 중 윤희 누나를 만나게 되는데 나의 피로를 풀어 줄 것만 같아 누나에게 기대고 싶어진다.

⑬ 형들은 음모를 꾸며 윤희 누나에게 저녁 9시까지 미영이네가 살던 집으로 나오라는 말을 나에게 전하라고 한다.

⑭ 무서운 음모에 가담한 나는 윤희 누나를 만나 말을 전하고 승낙을 받는다.

⑮ 돌아오는 길에 미영이 집에 들르게 되는데 황폐한 광경을 보게 되고 방위대 본부에 가봐야겠다는 생각에 담 위에서 골목으로 뛰어내린다.

빨치산의 습격으로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시(市)를 바라보면서 ‘나’는 절망감에 빠진다. 타고 있는 방위대 본부는 이전에 부호의 저택이었지만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아이들이 재미있게 뛰어 놀 수 있는 재미있는 놀이터였기 때문이다. 방위대 본부는 ‘나’의 유년기 시절의 순진무구한 세계를 상징하는데 이 곳의 파괴는 곧 유년기 꿈의 세계가 파괴됨을 의미한다.

그 집은 아무도 살고 있는 사람이 없이 썩어 가는 빈집으로서 우리들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어 주었었다. 온 시내에 있는 애들이 모두 들어와서 놀아도 좁지 않을 정도로 단순히 넓다기보다는 여러 가지로 재미있게 꾸며져 있는 곳이었다. <중략> 애들 중에서 그림을 제일 잘 그리던 내가 그 지하실의 백회 벽에 크레용으로 그림을 그리면 한 아이는 초 동강이에 불을 켜서 들고 나의 손이 움직일 방향으로 불빛을 보내 주었고 그리고 나머지 아이들은 부러움과 감탄의 눈초리로 내가 그리는 그림을 바라보고 그 그림 속에서 많은 얘기를 끄집어내어서 지껄이며 떠들고 그 그림을 자기들이 그린 것처럼 아껴 주고 다른 마을의 애들을 끌어 와서 자랑도 해 주곤 했다.⁹⁷⁾

전쟁은 여인들은 물론 아이들에게까지도 막대한 영향을 주는 폭력이며 인간의

97) 김승옥, 「乾」, 『무진기행』, 민음사, 1980, pp. 101~102.

이성과 선의에 도전하는 악이다. 전쟁은 가정의 평안한 상태를 파괴하고 불구화함으로써 아이들로 하여금 고아나 굶주림의 고통을 경험하게 하기도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순진과 무지의 상태에서부터 세계와 현상의 음험함과 무서움을 일깨우고 인지케 하는 교화적인 경험의 모형 되기도 하는 것이다.⁹⁸⁾ 이처럼 ‘나’는 전쟁을 경험하며 부조리의 세계에 던져진다. 방위대 본부의 파괴, 빨치산 시체의 목격과 아버지의 시체 매장 일, 형들의 윤희 누나에 대한 음모등 이런 파괴 현상은 외형적인 파괴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내면의식이나 도덕성의 상실까지 포함한다.⁹⁹⁾ ‘나’는 학교 가는 길에 만난 윤희 누나에게 벽돌 공장에 빨치산 시체가 있다는 말을 듣게 된다. ‘나’는 아이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앞장서서 달리는 등 빨치산 시체에 대한 호기심을 갖는다. 그리고 시체를 목격하면서 혼란스러움을 느낀다.

나는 고개를 얼른 돌려 버렸다. 다시 시체가 있었다. 그리고 그 시체가 누운 거기에서 풀밭이 시작되었고 풀밭이 끝나는 곳에는 벽돌 만드는 흙을 파내 오는 주황빛 언덕이 있었다. 그리고 그 언덕에서부터 까만색 레일이 잡초를 헤치고 뺨처럼 흐늘거리며 이쪽으로 뻗어 오고 있었다. 아무래도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을 던져 주는 구도였다. 방금 잠깐 쭈시고 간 그 강렬한 색채들 때문에 나의 눈은 눈물이 나도록 쓰러졌다. 나는 한손으로 이마를 두드려 어지러움이 가시게 하며 휘청휘청 학교로 돌아왔다.¹⁰⁰⁾

‘나’는 어지러움을 느끼게 되는데 이것은 성장의 증상이다. 이전에 느끼지 못한 감정을 느끼며 성장을 위한 각성이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식육조합원이던 아버지는 반장의 부탁에 시체 매장 일을 순순히 승낙한다. 그리고 형과 형 친구들까지 이 일에 동참시킨다. ‘나’는 아버지와 형, 형 친구들이 아무런 감정없이 시체를 치우는 것을 보면서 인간 내면에 있는 악을 다시 한 번 경험한다.

시체를 매장한 후 집에 가던 중 윤희 누나를 만나게 되는데 피로에 쌓인 ‘나’는 누나에게 기대고 싶어진다. 하지만 ‘나’는 순수와 모성성을 대신해 주던 윤희 누

98) 이재선, 앞의 책, p. 90.

99) 정상희, 앞의 논문, p. 57.

100) 김승욱, 앞의 책, pp. 109~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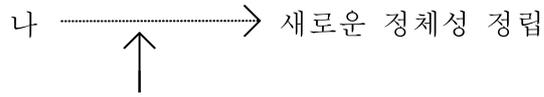
나를 유인하기 위해 형들의 무서운 음모에 가담한다. 형은 윤희 누나에게 가서 미영이가 살던 빈집으로 나오라고 시키는데 ‘나’는 거절하지 않고 윤희 누나를 만난다.

아아, 모든 것이 항상 그렇지 않았더니, 하나를 따르기 위해서 다른 여러 개 위에 먹칠을 해 버리려 할 때, 그것이 옳고 그르고를 따지기보다 훨씬 앞서 맛보는 섭섭함. 하기가 그것이 ‘자라난다.’는 것인지도 모른다. 미영아, 내게 응원을 보내라. 형들의 음모에 가담한다는 건 아주 간단한 일이다. 미영아, 내게 응원을 보내라. 그건 뭐 간단한 일이다. 마치 시체를 파묻듯이 그건 아주 간단한 일이다. 뭐 난 잘 해낼 것이다. <중략> 윤희 누나 앞에 서자, 나는 온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듯이 어지러워서 몸을 잘 가눌 수가 없었다. 억울한 일로써 선생님께 꾸중을 들을 때 나는 그런 기분을 느껴 본 적이 있었다.¹⁰¹⁾

‘나’는 윤희 누나에게 형의 말을 전하러 가면서 잘 해낼 것이라고 스스로 위로하는 장면이다. 그리고 형들의 무서운 음모를 위해 윤희 누나를 만나게 되자 또 다시 어지러움을 느낀다. 이는 윤희 누나에 대한 애증의 감정으로 도덕적 혼란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나’는 형들이 무슨 일을 벌이려는지 알고 있었지만 그런 형들에게 도움을 주며 음모에 개입하고 있다. 이것은 ‘나’가 이미 악을 행하는데 거부감을 느끼지 않으며 악의 세계에 편입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나’는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훨씬 앞서 맛보는 섭섭함을 두고 ‘자라난다’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즉 ‘나’에게 중요한 것은 도덕적인 질서보다 성인 세계 진입에 성장을 이루는 것이다.

이상의 진술을 통해서 볼 때, 주 인물은 부조리 세계의 악의 체험을 통해서 새로운 정체성을 정립하는 성장을 보인다는 점에서 실천적 차원의 성장소설로 분류할 수 있다.

101) 위의 책, pp. 120~122.



부조리 세계의 체험

즉, ‘나’는 부조리 세계의 체험을 중개자로 하여 새로운 정체성을 정립하는 서사구조로 설명 할 수 있다. 그리고 순진한 소년이었던 ‘나’는 전쟁으로 인하여 방위대본부의 파괴, 충격적인 죽음의 목격, 아버지와 형들의 시체를 매장하며 돈을 버는 비윤리성 목격, 형들의 음모 가담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혼란과 환멸을 느끼면서도 결국 동참하고 악의 세계로 입문하며 새로운 정체성을 정립하게 된다.

3) 사회악의 경험과 성장통

이옥수의 『푸른 사다리』는 혹독한 사춘기를 겪으며 성장해 나가는 이야기이다. 윤제라는 어린 소년이 서울의 빈민촌 ‘꽃마을 비닐하우스 촌’에 거주하게 되면서 가난과 결손, 비행의 악을 경험하게 되는 내용이다. 이 소설에서 주인공 윤제는 서울의 빈민촌에 거주하게 되면서 세 가지 악을 경험한다. 첫 번째는 가정 폭력의 악이고, 두 번째는 우리 사회의 그늘진 모습인 천민자본주의 형태의 악이며, 세 번째는 청소년 시기에 빠지기 쉬운 비행의 악이다.

이 소설의 중요한 서사적 사건은 23개의 단락으로 요약하여, 꽃마을 비닐하우스 촌 시퀀스→빈곤한 생활 시퀀스→철거 시퀀스→방황과 비행 시퀀스→사랑과 성장 시퀀스로 묶어 문학적 의미와 주제의 생성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꽃마을 비닐하우스 촌 시퀀스>

- ① 윤제네 가족은 윤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강원도에서 서울에 있는 ‘꽃마을 비닐하우스 촌’으로 이사를 오게 된다.
- ② 이 곳은 하우스 한 동에 보통 네댓 집이 칸을 막고 산다.
- ③ 이 동네는 온종일 조용하다가도 저녁이 되면 싸우는 소리, 맞고 우는 소리가 들리며 시끌벅적하다.

<빈곤한 생활 시퀀스>

- ④ 윤제네 아버지는 새벽에 ‘인간 시장’에 나가고 어머니는 빌딩 청소와 식당 일을 하며 어렵게 생계를 꾸려 나간다.
- ⑤ ‘끝네 할머니’는 배가 고프면 아무 집이나 문을 열고 밥을 주라고 한다.
- ⑥ 윤제네 옆집 지희네는 아빠가 골수암을 앓고 있어서 어머니가 파출부를 해서 먹고 살고 털보 아저씨는 리어카를 끌고 고물을 주우러 다닌다.

<철거 시퀀스>

- ⑦ 어느 날 철거가 시작된다는 소문과 함께 낯선 사람들이 하우스를 기웃거리며 돌아다닌다.
- ⑧ 마을 사람들은 복부인에게 집을 팔며 떠나기 시작했고 하우스를 산 사람들은 집 한 칸을 두 세 집으로 둔갑시킨다.
- ⑨ 윤제 아버지도 집 짓는 일에 협조하며 돈을 벌었고 어머니는 비닐하우스를 소개시켜 주는 일을 하며 돈을 번다.
- ⑩ 동네 사람의 신고로 철거반들이 와서 하우스를 부수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서로 엉키며 아수라장이 된다.

<방황과 비행 시퀀스>

- ⑪ 윤제는 학교에 교과서를 갖고 오지 않아서 담임선생님이 집에 방문 하겠다고 하자 학교에서 도망친다.
- ⑫ 다음날 윤제는 담임선생님 만나는게 걱정되어서 친구 호성이와 결석하고 공사판 쪽에 있는 숲에 아지트를 만들어 시간을 보낸다.
- ⑬ 윤제 어머니는 동네 야간 순찰을 하고 집에 갔는데 술에 취한 아버지가 어머니의 머리채를 잡아끈다.
- ⑭ 윤제는 옷 사이로 별경게 달아오르는 가슴을 보이는 아버지가 시빨건 빨갱이로 보인다.
- ⑮ 태욱이와 싸워 눈덩이가 부어오른 날 아버지에게 꾸지람을 듣고 집을 나와 용호 형을 만나게 되는데 다른 집의 물건을 훔치는 도둑질을 경험한다.
- ⑯ 중학생이 된 윤제는 용호 형의 부탁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도둑질을 하

다 걸려서 파출소에 잡혀가는데 어머니의 사정으로 풀려난다.

- ⑰ 어느 날 본드를 하고 정신이 없는 태욱이 대신 윤제가 새대가리파가 있는 곳에 가게 되고 그들과 함께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훔친다.
- ⑱ 도둑질이 발각되어 윤제는 특수절도죄로 연행되고 새대가리파와 함께 소년원에 들어간다.

<사랑과 성장 시퀀스>

- ⑲ 윤제 어머니는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하루도 거르지 않고 면회를 간다.
- ⑳ 윤제는 틈틈이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고 어머니도 윤제에게 애정 어린 편지를 보낸다.
- ㉑ 판사는 6개월 동안 소년원에 송치하는 대신 윤제 어머니의 고통과 사랑을 참작하여 용서를 하고 윤제는 가정으로 돌아간다.
- ㉒ 철거반으로 인해 꽃마을 비닐하우스 촌에 살던 사람들은 할 수 없이 이사를 가게 되었고 끝까지 남아있던 윤제네 가족은 작은 보상을 받고 옥탑방으로 이사를 간다.
- ㉓ 윤제는 옥상에 걸쳐진 사다리를 보며 튼튼한 사다리가 되겠다고 생각하며 하늘을 올려다본다.

윤제네 가족은 서울에 있는 ‘꽃마을 비닐하우스 촌’에 거주하면서 아빠는 새벽에 ‘인간 시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어머니는 빌딩 청소와 식당 일을 하며 어렵게 생계를 꾸려나간다. 어려운 삶을 살고 있지만 윤제 부모는 가정을 보살피고 자식을 사랑하는 분들이다. 하지만 어린 윤제는 부모에게서 악을 경험하며 공포에 떨고는 한다. 윤제의 아버지는 술을 곧 잘 마셨고 술을 마신 날에는 평소와는 다른 모습으로 돌변하여 어머니를 괴롭히고 집안은 아수라장이 된다.

아버지가 엄마 머리채를 잡아끌었고, 엄마도 아버지 옷을 잡아뜯으며 땅바닥을 뒹굴었다. 처음에는 부부 싸움이라 말릴 엄두도 못 내던 사람들이 엄마가 죽는 소리를 치자 달려들어 말리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말리는 사람들에게 눈을 부라리며 욕을 해댔다.

“놔, 이 시벌놈들아! 이래 봐도 인간 김학재가 막장 인생 20년이란 말이여, 놔!”¹⁰²⁾
윤제가 달려가 보니, 엄마의 머리는 산발이 되고 옷은 뜯겨나가 앞가슴이 다 보일 지경이었다. 윤제는 아버지를 노려보았다. 찢어져 너털거리는 아버지 옷 사이로 별칭 게 달아오른 가슴이 보였다. 그 순간 윤제는 화들짝 놀랐다. 아버지가 속이 벌건, 이승복의 입을 찢어 죽였다는 시빨건 빨갱이로 보였기 때문이다.¹⁰³⁾

술을 마시면 돌변하는 아버지에게서 ‘이승복의 입을 찢어 죽였다는 시빨건 빨갱이’¹⁰⁴⁾로 보이게 되는데 이처럼 아버지의 가정 폭력이라는 행동에서 악을 경험한다. 윤제는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경멸하게 되고 죽이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내면에 자라고 있는 악을 발견한다.

두 번째 악의 표상은 ‘돈’이다. 비닐 하우스촌이 곧 철거된다는 소문이 동네에 돌게 되었고 이 일을 알고 딱지를 받고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이 하우스를 사들이기 시작한다. 비닐 하우스집이 돈을 받고 팔리기도 하고 한 집의 하우스를 두, 세 칸으로 나누어 더 큰 이익을 챙기는 사람도 있었다. 하룻밤에 날림으로 지은 하우스가 잘 팔려나가자 윤제 아버지도 낮에는 동네 사람들과 어울려 놀다가 밤에는 동사무소의 단속을 피해 집 짓는 일을 하였다. 어머니도 빌딩 청소와 식당 일은 집어치우고 복부인이라는 사람한테서 “사모님, 사모님”하고 굽실거리며 뒤꽂무니를 따라다닌다. 이제 동네 사람들은 돈 천만원도 탐탁해 하지 않았고 나라에서 영세민에게 주는 영구 임대 아파트를 받는 것이 목표가 되었다. 어느 날 신고를 받고 구청에서 철거반을 데리고 나와 하우스를 때려 부수기 시작한다.

법원 앞은 벌써 아수라장이었다. 노란 모자를 쓴 철거반들이 한쪽에서는 살림살이를 들어 내고 다른 쪽에서는 망치로 하우스를 부수고 있었다. 이미 하우스 몇 동이 무너지고 뜯겨서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다. 사람들이 철거반들에게 달려들었다. 하우스 사람들보다 철거반들이 훨씬 많았다. 사람들이 서로 엉키고 끌어 내리고 밝혀서 비명을 질렀다. 윤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가슴을 벌렁거리며 그 자리에 못박힌 듯 서 있었다. 머리가 하얗게 센 어떤 할머니가 다리를 뺏고 앉아서 땅바닥을 치며 울었다. 어떤 남자는 머리에 피를 흘리며 뛰어갔다.¹⁰⁵⁾

102) 이옥수, 『푸른 사다리』, 사계절, 2004, p. 48.

103) 위의 책, p. 49.

104) 위의 책, p. 49.

서로 이익을 챙기기 위해 엉키며 싸우는 어른들의 폭력적인 모습을 보면서 윤제는 또 한 번 우리 사회의 악을 경험하며 충격을 받는다. 그리고 윤제는 각목을 들고 전경을 내리치며 악을 쓰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우리도 공격하자!” 하며 함께 있던 아이들에게 소리를 치며 철거반들이 타고 있는 트럭을 향해 돌을 던진다. 관찰자 입장에 있던 윤제는 자신도 모르게 성인들의 악의 세계에 동참하게 된 것이다.

세 번째 악은 비행이다. 윤제는 가출과 함께 비행을 저지르고 결국 유치장과 소년 분류 심사원 생활을 거치게 된다. 윤제는 학교가 가기 싫거나 부모님께 꾸중을 들으면서 가출을 반복하게 되고 가출을 하면서 불량 친구들을 만나 도둑질이라는 악을 행한다.

해일이와 경훈이는 그 다음날에도 윤제에게 빨랫줄에 널려 있는 옷과 이불을 훔쳐 오게 했다. 윤제는 양심이 찢리고 손이 떨렸지만 아이들에게 알보이기 싫어서 덤덤한 척 행동했다. 아이들은 윤제가 훔쳐 온 것들을 산으로 가져갔다.¹⁰⁶⁾

윤제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동시에 학교에 가지 않는 이 생활이 차라리 편하다는 생각을 한다. 며칠 후 어머니를 만나게 된 윤제는 가정으로 돌아가게 되고 중학생이 되었다. 하지만 불량친구의 부탁으로 도둑질이 반복되었고 파출소로 연행된 윤제는 어머니의 사정으로 풀려난다. 이후, 착실히 지내던 윤제는 공터에서 본드를 마셔 황설수설하는 태육이를 만난다. 그리고 태육이가 ‘새대가리파’라는 것을 알게 된 후 태육이 대신 윤제가 새대가리파가 있는 곳에 가게 된다.

윤제는 태육이가 용감하다고 한 말에 괜히 우쭐해졌다. 호랑이라고 생각했는데 잠고 보니 태육이가 가엾은 고양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윤제는 문득 이 기회에 자기가 어떤 아이인지 확실히 보여 주고 싶은 욕심이 일었다.¹⁰⁷⁾

이처럼 청소년들은 다른 이들에게 우월해 보이기 위해 악을 행하며 비행을 저

105) 위의 책, pp. 59~60.

106) 위의 책, p. 89.

107) 위의 책, pp. 143~144.

지르는 경우가 많다. 윤제도 자신이 강하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악에 다가서는 것을 볼 수 있다. 태육이 대신 새대가리파에 가게 된 윤제는 슈퍼마켓 물건을 훔치게 되고 이 일이 발각된다. 그리고 특수절도죄로 연행되고 소년원에 들어가게 된다.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도착한 윤제는 이 곳에서 영영 나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절망감에 가슴이 내려앉는다. 정해진 방에서 생활을 하였고 심성 수련을 하면서 다른 아이들이 이곳에 오게 된 이유를 들으며 아픔을 공감한다.

사랑하는 아들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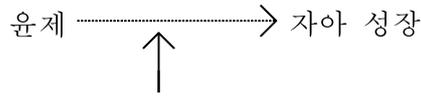
지금 형하고 아빠하고는 자는데 엄마는 옆에서 너한테 편지를 쓴다. <중략>
너만 집에 돌아오면 우리 집도 다시 예전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을거야. 우리 아들이 엄마 맘 알고 싸우지 않는 거 정말 잘했다. <중략> 엄마는 우리 윤제가 잘 참고 좋은 성적 받아서 집에 오라고, 그 말 하러 매일 면회 가는 거야. 윤제야, 누가 놀리거나 때려도 참고 싸우지 마라. 너는 내 아들이야. 사랑한다.

윤제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엄마가¹⁰⁸⁾

윤제에게 이 곳 생활을 잘 버티게 해주고 반성을 할 수 있게 해주신 분은 바로 어머니이다. 윤제 어머니는 하루도 면회를 거르지 않았고 정성껏 탄원서를 제출하며 윤제가 하루 빨리 가정에 돌아 올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이러한 사랑과 관심은 큰 힘이 되었다. 윤제의 판결이 있는 날 6개월 소년원에 송치하려던 결정이 어머니의 고통과 사랑이 참작되어 용서하기로 판결이 난 것이다. 그리고 윤제는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윤제네는 꽃마을 비닐하우스 촌 철거로 인하여 작은 보상을 받고 옥탑방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데 옥상에 걸쳐진 사다리를 보면서 윤제는 튼튼한 사다리가 되겠다고 다짐한다. 그러므로, 이 소설은 주 인물 윤제가 사회 악의 경험과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자아를 각성하는 인식적 차원의 성장소설로 분류되는 유형적 특성을 보여준다.

108) 위의 책, p. 196.



사회 악의 경험과 어머니의 사랑

다시 말해서, 윤제는 사회 악의 경험과 어머니의 사랑을 중개자로 삼아 자아 성장에 이르는 서사모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윤제는 악의 세계 속에서 충격과 공포를 경험하게 되고 비행을 저지르며 소년원에까지 가게 되지만 어머니의 사랑으로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게 되고 건강하게 자라나겠다고 다짐하며 성장을 이룬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세 편의 작품에 드러난 ‘순수성의 상실’ 모티프의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인공들은 악을 목격하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악위적인 질서에 편입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서 주인공 한병태는 엄석대의 독재적인 행동에 저항하다 무릎을 꿇게 되고 엄석대가 만들어 놓은 악의 울타리 안에 거하게 되며 악의 질서에 편입한다. 『乾』에서 주인공 ‘나’는 형들이 윤희 누나에 대한 무서운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도움을 주며 음모에 개입한다. 『푸른 사다리』에서 윤제는 불량친구들을 만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러한 모험은 용감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비행을 저지르며 악을 행한다.

둘째, 어른들의 관심과 사랑은 미성숙한 청소년들에게 악에서 벗어나는 이정표와 같은 역할을 한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서 방관자적인 무능한 담임선생님으로 인하여 학급은 더욱 악의 길로 빠져들게 되었고 새로운 담임선생님의 등장으로 인하여 악을 소탕하며 학급의 질서를 바로 잡게 된다. 『푸른 사다리』에서 윤제는 가출과 비행을 일삼아 소년원에까지 가게 되지만 자신의 행동에 반성을 하고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지극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청소년들에게 있어 어른들의 역할의 중요함을 일깨워준다.

셋째, 악의 체험을 모티프로 한 성장소설은 인간성에 대한 각성과 ‘선’을 추구한다. 독재의 악, 성인 세계의 악, 사회의 악, 전쟁의 악, 비행의 악등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악의 등장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으로 우리들의 그릇된 삶과 행동에 대한 고발이라고 할 수 있다.

Ⅲ. 한국 현대 성장소설의 양상과 의의

해방 후, 한국 현대 성장소설은 급변해온 사회 역사적 환경 속에서 성장기의 주인공들이 ‘자아정체성’ 문제를 심도 있게 탐구해왔다는 점에서 그 소설사적 의의와 유형적 가치를 평가할 만하다.

지금까지의 모티프 분석을 통해서 드러난 한국 현대 성장소설은 인식적 차원과 실천적 차원의 두 가지 성숙의 양상을 형상화하는 특성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분석결과를 토대로 할 때, 성장소설에서는 혼돈의 상황에서 정체성을 찾지 못하는 주인공이 시련 과정을 거쳐 성장에 이르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이때, 주인공들은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자아와 세계를 인식하거나 능력, 꿈, 사랑과 같은 탐색 대상을 취하게 된다.

특히, 해방 후 한국 현대 성장소설들이 자아정체성을 찾아나가는 보편적 특성을 보이는 것은 당대의 시대 역사적 상황과 밀접한 상관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인간으로서의 주체성과 존재감을 강탈당한 일제 강점기와 6·25라는 동족상잔의 이념전쟁이 안겨준 인간성 상실과 파괴, 그리고 4·19민주화 운동과 5·16군사혁명 등이 가져다 준 역사적 상황 속에서 당대인들이 갈망하던 욕망은 주체로서의 자존감과 정체성을 되찾는 것이었다.

해방 후 한국 현대 성장소설에는 그러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 억눌려 있던 인간적 욕망이 소설에 반영되어 ‘나는 누구인가?’와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라는 공통의 질문을 끊임없이 되묻게 했다고 본다. 해방 후 한국 성장소설들이 인식적 차원과 실천적 차원에서 일관되게 정체성을 탐구한 것도 이런 오랜 억눌림에서 터득한 깨달음이나 욕망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미, 앞에서 분석을 통하여 밝힌 것처럼 한국 현대 성장소설에서 주체에게 정체성 탐구의 길로 나서게 하는 것은 ‘조력자의 역할’이다. 즉, 성장 주체는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삶을 이해하고 성장을 지향한다. 성장 주체는 결핍에서 충족으로, 분리에서 결합으로, 출발에서 귀환에 이를 때까지 갖가지 시련을 겪는다. 대부분 미숙한 성장소설의 주체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것

은 자신의 노력 외에도 조력자 역할을 하는 주변 인물들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조력자는 주인공이 시련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된 요인이나 동기가 되어 주기도 하고, 주인공이 자기의식을 강화하는데 자극을 주기도 한다.¹⁰⁹⁾ ‘여행을 통한 발견’ 모티프에서는 동행 인물을 조력자로 삼아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삶을 이해하고 성장을 이룬다. 이러한 현상은 ‘성과 사랑의 체험’ 모티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성장 주체는 상대 이성으로 인하여 ‘성’에 눈을 뜨며 성숙을 이루기도 하고, 상대 이성이 성숙한 사랑을 보여줌으로써 사랑의 본질과 의미를 깨닫고 성숙한 자아를 획득하기도 한다.

‘순수성의 상실’ 모티프에서는 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어른들이 조력자의 기능을 발휘한다. 어른들의 지혜로운 판단은 청소년의 성장 과정에서 바른 질서를 잡아주고 혹시, 옳지 않은 길을 가더라도 어른들의 따뜻한 사랑과 관심의 힘이 반성을 촉구하고 성장을 이루게 이끄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한다. 그리고 주변 인물들도 조력자의 역할뿐만 아니라 주인공과 함께 성장을 이루게 된다. 즉, 서로가 서로에게 성장의 계기를 마련해 주는 방식으로 주체로서의 길을 찾아가게 한다.

한국 현대 성장소설의 또 다른 특성은 ‘가족주의의 이념적 변화 양상’이다. 한국 현대 성장소설의 논의의 기반과 출발점을 가족주의 문화로 주장하는 것도 이런 논리에 근거를 둔다.¹¹⁰⁾ 성장소설의 기반으로 자리 잡은 가족 중심주의는 이제 점진적인 변화의 양상을 보여주는 특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가족주의의 변화 양상은 아버지의 부재, 강인한 여성상 인식 등의 주제로 형상화된다. 일제 강점기와 양극적인 이념 대립의 상황, 산업화의 과정 등으로 인해서 아버지라는 존재는 위상 정립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고, 여성의 능력은 상대적으로 중시된다. 이와 같은 시대 상황의 변화 속에서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무능한 존재로 왜곡되어 인식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아버지는 가장으로서의 권한이 약화됨으로써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가족이나 이웃 간의 정에 의존한 해결책을 모색함으로써 온정주의에 기반한 성장소설의 양상을 보여준다.¹¹¹⁾

109) 장서영, 앞의 논문, p. 124.

110) 위의 논문, p. 119.

한국 현대 성장소설에서는 가족으로부터 이탈하여 개인의 삶을 모색하는 양상도 눈에 띈다. 주인공이 고아로 등장하는 것은 유교적 세계관이나 그 전통 속에서 가족 중심주의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장치이다. 그리고 주인공이 편모의 가족으로 설정되는 것도 주인공들이 전통적인 가족중심주의로부터 자유로워짐을 상징한다. 이와 같이 성장소설에서는 전통적으로 중시되어왔던 가족의 문제는 서서히 축소되고 부권 부재와 결핍에 구애받지 않는 새로운 가족윤리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성장기의 자녀들도 무력하고 부재중인 아버지를 왜곡된 존재로 인식하기보다는 가족의 일원으로 이해하고 인식하는 특성을 보인다.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해방 후 한국 현대 성장소설의 양상을 정리해보면 아래 도표가 보여주는 것처럼, 자아정체성을 통한 성숙의 과정을 인식적 차원과 실천적 차원으로 대별하여 설명할 수 있다.

성장모티프	작 품	성장소설의 양상
성과 사랑의 체험	소나기	인식적 차원
	젊은 느티나무	실천적 차원
	사슴벌레 소년의 사랑	실천적 차원
아버지 찾기	아버지의 바다에 은빛 고기떼	인식적 차원
	자전거 도둑	인식적 차원
	사랑의 인사	인식적 차원
죽음의 인식	어둠의 혼	인식적 차원
	장마	인식적 차원
여행을 통한 발견	그해 겨울	실천적 차원
	하이킹 걸즈	실천적 차원
순수성의 상실	乾	실천적 차원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인식적 차원
	푸른 사다리	인식적 차원

111) 위의 논문, p. 157.

위 표에서 인식적 차원의 성장소설은 소설 속 주인공인 ‘나’가 각성의 매체인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자아와 세계와 같은 탐색대상을 인식하게 됨을 보여준다. 그리고 실천적 차원의 성장소설은 소설 속 주인공인 ‘나’가 조력자를 통해서 능력, 꿈, 사랑과 같은 탐색대상을 성취하게 됨을 시사한다. 즉, 인식적 차원이 강한 작품은 주체의 세계와 인간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깨달음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고, 실천적 차원이 강한 작품은 주체의 행위에 대한 능력이나 의지가 강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서, 한국 성장소설에서는 주인공이 자아정체성을 인식하고 깨닫는 과정을 통해서 성숙에 이르는 서사구조가 지배적이라고 할 수 있다.

IV. 결론

이 연구는 해방 후 한국 현대 성장소설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다섯 가지 모티프의 전개 양상과 특성 분석을 통하여 한국 현대 성장소설의 서사미학적 특성을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두었다.

분석을 통해서 드러난 한국 현대 성장소설의 성장모티프는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13편의 분석 텍스트가 보여준 성장모티프의 양상은 <성과 사랑의 체험>, <아버지 찾기>, <죽음의 인식>, <여행을 통한 발견>, <순수성의 상실> 등이었다. 이제, 각 모티프에 내재된 성장소설의 특성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성과 사랑의 체험’ 모티프(『소나기』, 『젊은 느티나무』, 『사슴벌레 소년의 사랑』)는 세 가지로 그 특성을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이 모티프에서는 비밀의 공유현상이 두드러진다. 『소나기』에서는 소녀가 죽기 전 입고 있던 옷을 입혀서 물어달라고 하는 비밀이 드러나는데, 이는 소녀의 얼룩진 스웨터에 소년과의 추억이 묻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밀은 소년과 소녀만 아는 사랑의 비밀이라는 점에서 성장소설의 특성으로도 볼 수 있다. 『젊은 느티나무』에서는 의붓남매로 만나 사랑을 하게 되는, 그래서 사회적 규범을 벗어나는 비밀이 숨어있고, 『사슴벌레 소년의 사랑』에서는 은수가 순희 누나를 위해 약속터에 있는 잣을 따는 둘만이 아는 비밀이 내재한다. 둘째, 성의 발견은 감각단계에서 시작되어 점차 정신적 단계로 성숙되어진다. 셋째, 주인공에게 상대 이성은 성장을 이루는데 큰 조력자의 역할을 담당한다. 넷째, 성 모티프는 남녀 두 인물 중에 한 사람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모두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특성을 보인다.

‘아버지 찾기’ 모티프(『아버지의 바다에 은빛 고기떼』, 『자전거 도둑』, 『사랑의 인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특성이 드러난다. 첫째, 아버지 찾기 서사의 결말은 화해로 마무리 된다. 위 소설들 속에서 아버지의 존재는 가장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존재들이며,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주인공들은 내면의 아픔과 갈등을 겪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아픔과 갈등은 극단으로 치닫지 않고 아버지를 이해하며

화해에 이르며 내면적 성장을 보여준다. 둘째, 성장소설에 등장하는 가족은 논리적이거나 계산적인 관계가 아닌 혈연적인 정으로 이루어진 끈끈한 관계이다. 그리고 소설 속 주인공들이 내면적 성숙을 이루는 계기는 아버지와의 대화에 의해 주어진다. 셋째, 새로운 가족윤리의 변화를 제시하고 있다. 김애란의 「사랑의 인사」에서는 아버지와의 갈등과정이 부재함으로써 이전의 성장소설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아버지를 힘의 상징,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일원으로 보듬어줘야 하는 존재로 인식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사실은 아버지의 부재를 뛰어넘는 새로운 가족윤리를 제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죽음의 인식’의 모티프를 다룬 「어둠의 혼」과 「장마」에서는 다음과 같은 특성이 드러난다. 첫째, 타자의 간접적인 죽음을 다룬다. 어린 주인공이 죽음에 대한 인식이 뚜렷하지는 않지만 타자의 죽음을 통해서 삶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지며 새로운 세계에 진입하게 된다. 「어둠의 혼」에서는 아버지의 죽음으로, 「장마」에서는 외삼촌, 삼촌, 할머니 가족의 죽음으로 인하여 삶과 죽음에 대해 통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둘째, 성장소설에서는 주인공들이 전쟁으로 인한 죽음을 통해 새로운 인식의 세계로 이입하면서 성장을 이루어나간다.

‘여행을 통한 발견’ 모티프(「그해 겨울」, 『하이킹 걸즈』)분석에서는 네 가지 특성이 두드러진다. 첫째, 여행을 떠나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다른 세계의 삶을 이해하고, 반성과 함께 자아성장을 이룬다. 둘째, 길 모티프는 ‘통행로서의 길’과 ‘자아발견의 길’이라는 두 가지 의미로 형상화 된다. 「그해 겨울」에서는 동해안으로 떠나며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새로운 삶을 지향하게 되고, 『하이킹 걸즈』에서는 실크로드 여행을 하면서 자아 발견의 길에 이입한다. 셋째, 탈출 모티프의 변형이다. 「그해 겨울」은 대학생살로부터의 탈출이며 『하이킹 걸즈』는 소년원에 가지 않기 위해 청소년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시작된 여행이다. 넷째, 통과 의례를 바탕으로 한 입사담의 서사구조는 분리→전이→결합의 세 단계로 드러난다.

‘순수성의 상실’ 모티프(「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乾」, 『푸른 사다리』) 분석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성이 드러난다. 첫째, 주인공들은 악을 극복하기 위해 악위적인 질서에 편입된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서 한병태는 엄석대

가 만들어 놓은 악의 울타리 속에 이입하여 악의 질서에 편입하게 되고, 「乾」에서 ‘나’는 형들의 불량한 음모에 가담하게 되며, 『푸른 사다리』에서 윤제는 불량 친구들의 비행을 모방하면서 악행을 저지른다. 둘째, 어른들의 관심과 사랑은 미성숙한 청소년들이 악에서 벗어나게 하는 이정표와 같은 역할을 한다. 셋째, 악의 체험을 모티프로 한 성장소설은 인간성에 대한 각성과 ‘선’을 추구한다. 소설 속에는 독재의 악, 성인 세계의 악, 사회의 악, 비행의 악 등이 등장하는데, 이러한 악은 우리들의 그릇된 삶과 행동에 대한 고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 현대 성장소설의 모티프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보편적인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방 후 한국 현대 성장소설에서는 대체로 ‘자아정체성’의 문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였다. 성장소설의 구조 양상을 인식적 차원의 성장소설과 실천적 성장소설로 나눌 수 있었던 것도 이런 데 근거를 두고 있다. 즉, 주인공들은 주변에 있는 조력자의 도움으로 자아와 세계에 대한 인식의 세계에 이입하거나, 능력과 꿈, 사랑과 같은 탐색 대상을 실천적 행동을 통해서 성취하게 된다. 해방 후 한국 성장소설에 이런 정체성 찾기 모티프가 대두된 것은 당대의 시대 역사적 상황과 상관성을 가진 것으로 보았다.

둘째, 성장의 주체는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삶을 이해하면서 성장을 이룬다. 성장소설에서 대부분의 주체들은 미숙하거나 시련을 견디기에는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지만,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주인공들이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주변 인물들의 영향이 크다는 사실에 대한 반증이다. 이때 주변 인물은 성장 주체에게 조력자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주인공과 함께 성장하는 특성을 보여준다.

셋째, 해방 후 한국 현대 성장소설은 전통적인 가족주의의 이념적 변화를 작품화한다. 21세기에 이르러서는 유교적 세계관에 따른 가족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족윤리를 제시하며, 개인주의적 삶을 모색하는 양상도 눈에 띄고 있다. 이것은 가족 중심주의가 개인주의로 옮겨가고 있는 사회 현상에 따라 한국의 성장소설도 그러한 변화를 적극 수용하면서 성장의 의미를 탐구해가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그러나 이 연구는 해방 이후에 발표된 더 많은 성장소설을 텍스트로 수용하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보다 충분한 텍스트들의 연구 속에서 한국 현대 성장소설의 보편적인 특성을 추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시대에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한국 성장소설의 전개 양상에 관한 궁금증은 추후의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참고문헌>

1. 기본 텍스트

- 강신재, 『젊은 느티나무』, 민음사, 2005.
김소진, 『자전거 도둑』, 문학동네, 2002.
김승옥, 『乾』, 『무진기행』, 민음사, 1980.
김원일, 『어둠의 혼』, 문이당, 2005.
김애란, 『사랑의 인사』, 『달려라 아비』, 창비, 2005.
김혜정, 『하이킹 걸즈』, 비룡소, 2008.
박기동, 『아버지의 바다에 은빛 고기떼』, 책세상, 2008.
윤홍길, 『장마』, 민음사, 1982.
이문열, 『그해겨울』, 『이강에서』, 청아출판사, 1996.
———,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이강에서』, 청아출판사, 1996.
이옥수, 『푸른 사다리』, 사계절, 2004.
이재민, 『사슴벌레 소년의 사랑』, 사계절, 2003.
황순원, 『소나기』, 일신서적출판사, 1997.

2. 단행본

- 안성수, 『현대소설의 이론과 분석 방법』, 보고사, 2015.
이보영 외, 『성장소설이란 무엇인가』, 청예원, 1999.
이재선, 『한국소설사』, 민음사, 2000.
———, 『현대 한국소설사 (1945~1990)』, 민음사, 2002.
조남현, 『한국 현대소설의 유형론 연구』, 집문당, 1999.
최현주, 『한국 현대 성장소설의 세계』, 박이정, 2004.
한용환, 『소설학 사전』, 문예출판사, 2012.

3. 논문

- 강민영, 「유년기 전쟁 체험 세대의 성장소설 연구 - 김원일 「어둠의 혼」, 윤홍길 「장마」를 중심으로」, 공주대 석사학위논문, 2013.
- 강민채, 「성장소설의 인물 성격유형 연구」, 제주대 석사학위논문, 2015.
- 강혜란, 「윤홍길 성장소설 연구 - 전쟁 체험의 작품을 중심으로」, 경남대 석사학위논문, 2004.
- 김연희, 「황순원의 성장소설 연구」, 서원대 석사학위논문, 2000.
- 남미영, 「한국 현대 성장소설 연구」, 숙명여대 박사학위논문, 1991.
- 박정은, 「윤홍길 성장소설 연구 - 악의 체험과 죽음의 체험을 중심으로」, 홍익대 석사학위논문, 2006.
- 박학희, 「황순원의 성장소설에 나타난 통과제의적 양상 연구 - 초기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중앙대 석사학위논문, 2013.
- 박현정, 「윤홍길 성장소설 연구」, 중앙대 석사학위논문, 2008
- 심일주, 「이문열의 성장소설 연구 -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과 「젊은 날의 초상」을 중심으로」, 홍익대 석사학위논문, 2007.
- 안성수, 「한국 근대 단편소설의 플롯 연구 시론」,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9.
- , 「소설의 플롯시학 연구」, 백록어문학회, 2015.
- 이영미, 「김애란의 성장소설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학위논문, 2012.
- 장서영, 「한국 현대 성장소설의 모티프 분석」, 가톨릭대 석사학위논문, 2009.
- 정상희, 「한국 현대 성장소설의 서사구조 연구」, 단국대 석사학위논문, 2001.
- 정현아, 「청소년문학에 나타난 성과 사랑에 대한 고찰」, 인화대 석사학위논문, 2010.
- 최현주, 「한국 현대 성장소설의 서사 시학 연구」, 전남대 박사학위논문, 1999.
- , 「한국 현대 성장소설 고찰 I - 부권부재 모티프를 중심으로」, 한국현대소설학회, 1999.
- 허선화, 「한국 현대 성장소설의 유형 연구」, 신라대 석사학위논문, 2007.

<Abstract>

Analysis of Motifs in the Korean Modern Formation Novels

Back, Kyoung-ah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Ahn, Seong-soo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narrative aesthetic characteristics in the Korean modern formation novels by development and feature analyses of five motifs which have commonly appeared in the Korean modern formation novels since Liberation. The methodologies of Structuralism and Formalism were used and the inductive text analysis was utilized to find out the characteristics of each motif in this study.

Through this process, growth motives from 13 texts were categorized into 5 following aspects <Experience of Love and Sex>, <Finding Father>, <Awareness of Death>, <Discovery through Journey>, <Loss of Innocence>. By analyzing motifs, Korean modern bildungsroman(growth novel) identified the feature of embodying two types of maturity aspects in practical and cognitive dimension. In bildungsroman(growth novel), it is mainly dealt with a story whereby the protagonist, confused the identity under chaotic

circumstances, reaches full growth, finding his identity through suffering the ordeal of life. In addition, universal characteristics from Korean modern bildungsroman(growth novel)are as follows. First, in post-liberation Korean modern bildungsroman, self-identity issues are explored deeply. In other words, an attraction drawn to 'finding identity' motif is related with social and historical situation in contemporary society.

Second, the subjects of the formation could be developed by understanding life in the relationship with others. The Korean modern formation novels were confirmed to have the characteristics that the roles of supporters were emphasized for the development of new outlook on the world as well as self-development of the main characters in the novels.

Third, another feature of the Korean modern formation novels is to materialize the change of familism ideology. Family-oriented ideology positioned as the foundation of the formation novels could be found in the gradual changing trends. New family ethics were suggested relieving from the family-oriented ideology based on the Confucianism world outlook, and the different features were found from the past era such as searching for Individualism life.